



한인회보

2011 | 2010 | 2009 | 2008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33110 Pacific Hwy South Suite # 7 & 8 Federal Way, Washington 98003
T:206)734-4080 F:206)429-3232/시애틀한인회 홈페이지 www.wakaa.org

MEMBER FDIC SBA Preferred Lender Program PLP LENDER

FreeWay_{크루}

달려라!

Personal Free Checking

PI Bank 의 Personal Free Checking이 드리는 혜택

- 대부분의 대형 은행에서 요구하는 미니멈 발란스 및 월 수수료 없음
- 전국 모든 MoneyPass ATM 이용 시 수수료 없음
- 실시간 폰 뱅킹 (866-741-2265)
- \$250,000.00 연방 보험 가입

Free Checking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PI Bank 지점에 문의하세요



www.pibank.com

CORPORATE HEADQUARTERS & SEATTLE BRANCH
1155 North 130th Street Seattle, WA 98133
T.206.306.7900 F.206.306.7999

LYNNWOOD H - MART BRANCH
T.425.776.5111 F.425.776.5777

FEDERAL WAY BRANCH
T.253.941.9200 F.253.941.9201

TACOMA BRANCH
T.253.984.7900 F.253.984.7999

후세에 길이남을 한인회 되길 후원합니다



존경하는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동포여러분

2011년 한 해 동안에도 어려운 불경기를 극복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워싱턴주 내 최초 창설된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가 창립 44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인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역대 회장님들과 저와 같이 지난 4년 동안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위상과 동포사회권의 신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하신 임광희 이사장님과 임원 이사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해를 마감하는 한인회 아리랑밤 및 총회를 맞이하여 걱정거리의 모두 털어 없애고 좋은 것만 간직하여 새해에는 더욱 알차고 건강한 동포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니다. 올 한해도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각종사업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모든 동포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동포사회 권익신장과 차세대를 위한 각종사업에 혼신을 다하여 우리 임원 이사님들의 협조 하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동포사회의 염원이었던 다목적 회관건립은 하지 못했지만 전직 회장이 구입했던 신회관 구입에 입주도 못하고 구회관 판매에 부적절했던 일에 법정문제까지 가야하는 어려운 고통 속에서 40여 년 동안 이루어진 100여만 불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 공동수습위원회와 다 같이 합심 노력한 끝에 그래도 빛더미에 오르려던 우리 한인회의 재산이 30만 불 정도의 종자돈이라도 마련하여 다목적 회관을 마련할 수 있는 기대감이라도 갖게 된 것을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불어 닳치는 불경기인 지난 4년의 세월은 그 어느 누구도 견디기가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개인사업을 저버리고 100% 한인회 재산 이익과 동포사회 권익 신장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회보 속에 실린 사업보고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제가 기록한 사업내용은 50%도 기록 못한 편입니다. 시대에 착오로 구입된 신회관과 구회관 판매에 관한 사항은 물론 제가 구입하고 판매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갖는 것보다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한인회 운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목적 회관만 계획할 것이 아니라 차세대를 위한 교육센터와 우리 조국의 전통문화교육과 한글교육 그리고 나날이 늘어나는 노인회에 관한 중점적인 사업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인 동포사회가 분열보다는 합심 단결하여 워싱턴주 내 우리 한인회 동포가 한 목소리를 낼 때 우리의 위상은 주류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모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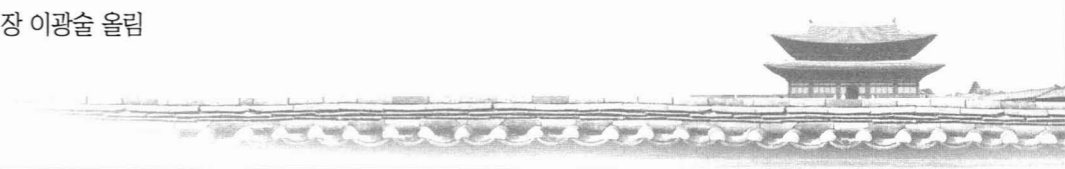
본인이 2008~2009년 제40대 한인회 출범 시부터 2010~2011년 제41대 한인회에 이르기까지 지난 4년 동안 변함없이 계속 봉사해온 우리 임원 이사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새롭게 취임하는 서용환 회장과 방석문 이사장 두 분 모두 공동 수습위원회에서 업적을 가졌었고 또 한인회 수석 부회장과 수석 부이사장으로서 많은 경험과 지도력으로 이제 남은 과업을 위하여 더욱더 분발하여 후세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제42대 한인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동참하여 힘껏 후원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변함없이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발전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모든 동포여러분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성탄절과 연말 잘 보내시고 희망찬 무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한인동포여러분 각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12월 17일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회장 이광술 올림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제42대 임원 · 이사 명단

〈회장단〉 회장 이광술, 명예회장 김기현, 수석부회장 서용환, 부회장 신제니, 지회장(린우드) 안득찬, 지회장(페더럴웨이) 홍정자, 지회장(벨뷰) 전은주, 지회장(벨링햄) 도정숙, 사무총장 박기범, 사무장 한호정, 섭외부장 박정남, 섭외부차장 성유영, 교육부장 최석규, 교육부차장 성유영, 재무부장 신제니, 재무부차장 제기한, 행사부장 박기범, 홍보부장 이성, 사회복지부장 김병섭, 여성부장 한하나, 여성부차장 김혜주, 편집부장 김동욱, 편집부차장 김은진, 법률부장 김은영, 법률부차장 박정남, 문화부장 한정열, 문화부차장 이윤정, 봉사부장 김재포, 한국무용부장 에스더김, 체육부장 손창락, 경로부장 손현주, 사진보도부장 채승호, 청년부장 UW 김종현, 청년부차장 UW 이준혁, 전통문화부장 홍성권, 전통문화부차장 홍지나, 기획부장 이정하, 기획부차장 설미영

〈이사장단〉 이사장 임광희, 수석부이사장 방석문, 총무이사 최영자

〈감사〉 재정감사 박성, 수행정감사 서영민

〈회관건물 관리부〉 부장 김기현, 차장 이영조, 관리 서용환, 재무 제기한, 위원 임광희, 안득찬, 박기운, CPA, 변호사

〈행사준비위원장〉

한인의 날 행사준비위원장 시애틀·타코마·밴쿠버·스포켄 한인회 & 한미재단
시페어 행사위원장 방석문, 재미재포, 전은주, 최영자, 이종식, 한호정
한국전통 문화예술축제 위원장 한정열, 에스더김
독도홍보위원장 홍승주, 김종현, 이준혁
사랑의 골수기증위원회 유진규, 김기현
아리랑의 밤 행사위원장 홍정자, 박정남, 한호정, 김재포, 이성, 김은영

〈고문〉 이현기, 신호범, 조성욱, 정철식, 강동언, 오계희, 오준걸, 박태호

〈법률고문〉 정상기

〈명예고문〉 김승리, 백봉현, 이민구, 최훈, 허명

〈자문위원〉 윤광남, 최주찬, 한원섭, 곽종세, 김석민, 강희열, 민학근, 강석동, 유철웅, 이영조, 김준배, 홍승주, 서영민, 김기현, 최기선, 주완식, 박태수, 성석영, 주디문, 손옥봉, 정상균, 황의선, 조성욱, 조민호, 김학병, 장부관, 함재명, 최지연, 지은정

〈상임이사〉 임광희, 방석문, 이영조, 서용환, 신제니, 안득찬, 홍정자, 김기현, 박정남, 이광술

〈자문이사〉 강봉수, 권정, 고봉식, 김건영, 김영일, 김현길, 김정부, 김준성, 김수영(CB), 김수영, 박영민, 민명기, 샌드라 잉글랜드, 손동학, 웨리송, 신광수, 신금옥, 신디류, 신춘호, 심상연, 유근열, 유니스정, 유진규, 엄도승, 이동립, 최경수, 이백현, 이수잔, 이종화, 임성빈, 장진식, 정문호, 정정이, 최기선, 주완식, 박태수, 성석영, 주디문, 손옥봉, 정상균, 황의선, 조성욱, 조민호, 김학병, 장부관, 함재명, 최지연, 지은정

〈이사〉 김기현, 김동욱, 김성훈, 김순아, 김승애, 김은영, 김재포, 김건영, 김예주, 김정금, 박기운, 박재동, 박정남, 방석문, 서용환, 성유영, 손현주, 신제니, 안득찬, 양희영, 에스더김, 유상재, 유희근, 이광술, 이미숙, 이영조, 이윤정, 이창래, 이성, 임광희, 장송욱, 장옥현, 장용석, 장현식, 제기한, 전은주, 조앤박, 채승호, 채정민, 최석규, 최영자, 홍정자, 한호정, 한정열, 한하나, 홍성권, 홍승주, 홍윤선, 홍지나

아리랑의 밤을 맞이하여



해마다 찾아오는 아리랑의 밤이지만 금년에는 참으로 뜻 깊은 우리 시애틀 우리 동포들의 밤입니다.

이곳 시애틀에는 역사에 길이 남을 한인 워싱턴주 상·하원 의원이 있는 곳입니다. 이는 자랑스러운 일로 앞으로도 더 많은 한인들이 미 정계에 진출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섰으며 국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중심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들에게 큰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4년 ICT(정보통신기술) 올림픽도 한국에서 열리기 되어 있습니다.

이 올림픽은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개최된 바 있는데,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가 IT 강국으로 인정받은 지 오래이며 이것 역시 G20에 버금가는 국제행사로서 우리나라 위상 제고에 또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 미국정부와 한국정부가 이미 인준을 마친 한미FTA를 야당에서 정략적으로 반대해 한국의 발전 속도를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건전한 비판과 화합 단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애틀 동포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굳건히 참고 견뎌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치하를 드리며 새해에는 한미FTA 이행으로 양국의 경제성장에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동포들 가정에 인내와 고통 뒤에 찾아오는 그 희열을 체험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3일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이사장 임광희



동포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포여러분,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창립 44주년을 축하하며, 아울러 이 지역 동포여러분과 함께하는 2011년도 송년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포사회로 손꼽히는 이곳 서북미지역에 부임하여 동포여러분과 함께 처음 맞이하는 연말인 지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경제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하듯이 어려운 시기가 있으면 반드시 호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허례허식을 줄이고, 화합 단결하며,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44년간 우리 동포사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신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의 여러 회장님과 이사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진년 새해는 물론, 앞으로도 한인회를 중심으로 동포사회가 더욱 화합하고 단결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포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무궁한 발전을 축원합니다.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송영완 총영사 올림

여러분! 새해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새해 행복하십시오.

시애틀한인회 송년행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반백 년의 긴 세월을 이어온 한인회지도자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경의를 표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순간 참으로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살처럼 지나가는 것이 시간이고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냥 훌쩍 떠나 보내는 올 한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생각해보면서, 시간의 귀중함을 새삼 깨닫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해 행복하셨습니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속 통나무집에 노인 한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세상의 온갖 지혜를 다 지닌 분이었습니다. 노인이 어쩌다 마을에 내려오기라도 하면 온 마을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기위해 몰려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마을사람들에게 행복의 비밀을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단 이 비밀을 들을만한 가치가 있는 한 사람에게만 말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모로 궁리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움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라 생각하고 마을에서 가장 예쁜 소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 소녀를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의논한 끝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풍부한 재산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노인은 행복의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슬펐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까지 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노인은 마침 작은 새를 안고 울고서있는 소년을 만났습니다. 노인이 다가가서 물으니 소년은 다친 새가 불쌍해서 울고 있노라고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기뻐했습니다. 이제야 행복의 비밀을 말해줄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얘야, 지금 네가 흘리고 있는 눈물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 이란다. 남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을 맛 볼수 없거든.”

그제서야 이 행복의 비밀은 소년을 통해 사람들에게 널리 널리 전해졌다고 합니다. 전해들은 얘기인데, 이 얘기처럼 행복의 비밀은 바로 다친 새가 불쌍해서 울고 있는 소년의 마음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앞으로 저희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각 지역한인회와 머리를 맞대고 이런 행복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행복한 미주한인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미주한인회 표본이 되어주시는 이광술 회장님 이하 한인회 관계자 여러분 한 해 동안 교민봉사에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 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십시오.

2011년 12월 17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유진철

창립 44주년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이광술 회장님 그리고 시애틀 지역 동포 여러분,

오늘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의 창립 44주년 기념 행사 및 아리랑의 밤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4년전 이민 선배들의 근면함과 피나는 노력으로 세워진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가, 오래된 연륜속에 미 주류 사회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된것은 시애틀 동포사회를 비롯한 원로님들과 전임 회장님들의 노력과 수고 덕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교훈을 거울삼아, 앞으로도 회원간의 친목을 최우선의 과제로 모두가 화합할수 한인회, 1.5세, 2세대들이 주류사회에 많이 진출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한인회로서의 위상을 더 높혀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서북미 동포 사회가 다른 어느 때보다 단결하고 발전하고 평화스러워야, 우리 후세들에게 당당해 질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새로이 출범하게 되는 제42대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도 동포 여러 분들께서 힘을 모아 도와 준다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광술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이사 여러분들께서 지난 4년 동안 지역사회 발전 및 동포들의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하여 기여하고, 한인회 육성 발전에 남다른 애정으로 헌신과 봉사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한미 양국 국민의 우정과 이해를 높이고, 미주류 사회에 한인 동포 사회의 특유의 근면과 성실성을 알리는, 훌륭한 역할을 수행해 오신 이광술 회장님과 시애틀 한인회 전직 회장님, 그리고 임원 이사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만사가 형통하는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광술 회장님을 비롯한 시애틀 한인 사회와 동포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12.17

미주한인회 총연 서북미 연합회장 최화섭



CHRISTINE O. GREGOIRE
Governor



STATE OF WASHINGTON

OFFICE OF THE GOVERNOR

P.O. Box 40002 • Olympia, Washington 98504-0002 • (360) 753-6780 • TTY/TDD (360) 753-6466

Greetings from the Governor

December 17, 2011

I am pleased to extend warm greetings to all of those attending the 44th Arirang Night Celebration, hosted by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Tonight's event is a wonderful reminder that diversity is one of our nation's greatest strengths. I count it a privilege to have vibrant ethnic communities contributing to the social, artistic, and economic vitality of Washington, and I am thankful for the part each of you plays in establishing a rich cultural heritage in our state.

I applaud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for making this event possible. Their ongoing efforts to celebrate diversity and promote cultural awareness strengthen our communities and truly enrich us all.

Thank you for coming, and please accept my best wishes for a memorable time of celebration and fellowship.

Sincerely,

Christine O. Gregoire
Governor



**Washington State Senate****Senator Paull H. Shin, Ph.D.**21st Legislative District
Vice President Pro Tempore**Olympia Address:**
407 Legislative Building
PO Box 40421
Olympia, WA 98504-0421
Phone: (360) 786-7640
Fax: (360) 786-1999**District Office:**
19707 64th Avenue West, Suite 207
Lynnwood, WA 98036-5958
Phone: (425) 673-1393
Fax: (425) 774-6932
E-mail: shin.paull@leg.wa.gov

December 17, 2011

Dear Friends,

On behalf of the Washington State Legislature, I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 congratulate you on the 44th Anniversary of the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and in particular on the Arirang Night celebration. During these years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as benefited much from the outstanding work of the organization, as it worked to bring the Korean American and mainstream communities closer together. It is fitting to celebrate this festivity and I am pleased that you are taking the lead to organize such a celebration.

I especially want to thank all of those who were involved in this celebration for their hard work to make this night a reality, as we reflect on what we've accomplished this year, and plan new beginnings for the coming year. The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should be proud of its work to organize the event. I know all those in attendance will be delighted with the performances and I hope they will go away with a renewed sense of vigor and optimism.

Congratulations to all those involved in Arirang and best of luck for a prosperous and successful new year.

Sincerely,

Paull H. Shin
Washington State Senator
21st Legislative District**WASHINGTON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Rep. Cindy Ryu • 32nd Legislative District**

Congratulations,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resident Kenny KwangSul Lee, officers, advisors, and members on this night of the 44th Annual Arirang Night Celebration.

As we gather together in Edmonds, WA at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Seattle, again we highlight for the greater Seattle-Washington State community our rich Korean heritage, culture and traditions.

Just as important, we gather to enjoy each other's company and celebrate individual successes as we pursue the American Dream in our adopted land. Through this celebration, we role-model for our future generations - and for other communities of color - how we gather strength and amplify the impacts of individuals' actions: By working effectively together with common goals of service, and for the 44th consecutive year, bringing Korean Americans and our allies together.

As we face the continuing challenges with a collective desire for success and hope for the future, I wish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and all its members a peaceful and joyous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Sincerely,

Representative Cindy Ryu
First Korean American Female State Representative in Washington State

2011년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활동



1월

- 2일 임원 이사에게 신년 인사 전화 신년계획 법정문제 논의
- 3일 신화관 판매 카운터 오픈, 공동 수습위원회 Final Notice issue
- 4일 정상기 변호사가 보내준 서류 86Pages Copy 서명 후 공증 받아서 우편으로 보내줌
- 5일 정상기 변호사와 공증에 대한 설명, 구회관 법정 문제 재검토
- 6일 Rent 밀린 세입자들에 독촉 수금
- 8일 제4회 한인의 날 참석, 한인회장들 좌석과 소개 없었다. 참석하기로 약속했다는 주지사, 하원의장, 상원 의장 모두 불참. 한인들 200여명 주청사 찾아갔다가 실망했음
- 9일 10차 공동수습위원회 제신화관 판매에 구입가격에서 20% 이상 손실보고라도 판매하지는 의견 조율 현 시기는 구입가격에서 약 30% 이상 손실이 현 시세
- 10일 신호범 상원의원 신디류 하원의원 취임식 참석 한인회 임원 일동.
- 13일 PO Box 정리를 일주일에 2회씩 시애틀 시내 방문키로함
- 20일 11시 오전 제11차 공동 수습위원회 윤광남 법정 문제건 재검토, 신화관 판매건 Agent Commission(Referral for Kenny Lee 1.25%), 이광술(Kenny Lee) 회장은 1%를 한인회 수익 될 수 있도록 Agent Commission 1% Discount 해주기로 약속함(6%에서 5%로). 위 내용 공동 수습위원회에서 결의 확정함, 그로서리 협회 회관 구입 Open House 축하 참석 축하
- 21일~23일 미주 한인 총연합회 상임 이사회 참석
- 30일 구회관(부동산 업자) 소송 건 Mediation 건 참석자 논의(회장 이광술, 이사장 임광희, 한인회장 강석동, 이사대표 홍윤선, 건축부장 김기현, 공동수습31일 신화관 Buyer 연기 신청건

2011년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활동



2월



- 3일 행복 노인회 구정 모임에 참석 축하 후원금 전달
- 4일 가든 식당 애국 단체 모임 참석
- 5일 통합 한국 학교 설날 잔치 임광희 이사장 참석
- 6일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주최 주관 사회단체장 회의 및 임원·이사회. 25개 단체 참석 35명 참석 2011년 각 단체 사업계획 일정 조율, 신임 이사 홍윤선 재정민 필립최 흥성권 흥지나 조연 박 5명 인준 결의함
- 7일 구회관 판매건(윤광남 전화장) 법정 문제 Mediation(한인회참석자 이광술 강석동 홍윤선 김기현 한원섭)
- 15일 유진철 총연후보 아카사카 식당서 정견 발표
- 18일 평통 통일 특강 정창인 박사 통일 포럼 참석 / 31절 행사 준비 임원회 모임
- 20일 UW 학생회 Overnight Show에 임원 참석
- 25일 신호범 상원의원, 신디류 하원의원 선서식 참석, 라디오한국 시와 함께 하는 방송 특별 출연함
- 28일 구회관 법정문제 Settlement 서명함

2011년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활동

3월

- 1일 31절 행사 KOAM 시애틀 - 타코마 양한인회 공동 주최, 시애틀 한인회 주관 250명 참석, 서북미 연합회 회장단 회의 KOAM TV 공개를 참석, 한인회 비영리단체 License Renewal
- 2일 화관 공동 수습위원회 변호사 Final 보고 및 법정 문제 \$175,000 보상권, Mediation건 보고회
- 4일 한인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신임회장 강석동)
- 5일 이하룡 총영사 환송식(시애틀 한인회 주최 주관 250명 참가)
- 9일 이기택 평통 수석 부의장 특별 강연회 참석(클라리언 호텔)
- 12일 아이티 성금으로 현지 학교 건설 문제 결과 보고회 참석 축하
- 13일 신임 총영사 송영완 시애틀 공항 환영단체장 10여명 참석, 4월 2일(토) 환영식 갖기로 공항 환영 나온 지도자들과 합의함
- 15일 송영완 신임 총영사 시애틀 공항 환영단체장 외 10여명 참석, 제5차 임원 이사회 및 공동수습위원회 개최 2명 참석
- 17일 긴급 임원회(총영사 환영회 준비건)
- 18일 총영사관 도정봉 부총영사 전화할 "타코마 마해화 회장 영사관에 왔다 환영식 합동으로 할 것을 제의 이광술 답변 "왜 직접전화 아니하고 영사관에 찾아갔나? 좌우지간 나는 합동환영회를 원칙으로 하는 것 원한다고 답변함 타코마 한인회장의 요구사항
1)합동으로 하면 시애틀 한인회이름을 빼라 요구함: 이광술 답변 합동으로 환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름 빼는 것 문제없다고 답변 2)순서지 만드는데 만나서 같이하자 등 3-4가지 요구사항 모두 들어주기로 하고 순서지는 다음 주 월요일 가든식당에서 도정봉 부총영사와 3자가 만나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 그 후 약 2시간 후 3번째 또 전화가 왔다. 마해화 회장 요구사항 더 있다고 한다. 장소를 KOAM 말고 타코마 한인회관으로 하자. 이광술 회장은 그것은 곤란하다 이유는 첫째 회관은 50명도 들어가기 어려운 장소이며 둘째 중심지인 페더럴웨이로 원하였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후 또 다시 전화가 왔다. 다음 주 월요일 만나는 것 마해화 회장이 취소하겠다고 하고 별도로 타코마 한인회에서 환영회를 하겠다고 함.
- 21일 기자회견 구회관 판매건 윤광남 법정문제 해결건, 정상기 변호사 결과 보고회 \$175,000 보상 받기로 결정. 공동 수습 위원회와 한인회 간부 일반 사회단체장 각언론사 참석 기자회견
- 22일 한국일보 황양준 기자 "왜 타코마 한인회장 마해화가 만나지는데 만나지 않느냐"고 질문(당시 이광술은 샌디에고 출장 중 한인회관 에스스로 서류 때문 UPS에서 서류 기다리고 있던 차였음) 며칠 전 18일 영사관에서 있었던 일 그대로 설명하고 나는 만나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마해화가 약속을 취소하였다는 18일 도정봉 부총영사 중재한 증인이 있다고 강조함(그 후 한국일보 신문보도와 방송에 이광술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잘못된 내용 보도가 나갔으나 이광술은 대꾸할만한 가치도 없고 내용을 잘 알면서도 잘못 보도한 한국일보 신문에 항의할 시간조차 없었기에(회관 에스스로 전후이기 때문) 여기활동 업무보고에 기재함을 양해 바랍니다)
- 23일 타코마 한인회에서도 총영사 환영회를 단체장 회의 겸한다는 소식(일정도 같은 날짜에 시간만 다르다) 소동과 함께 언론 보도되어 문제점 확산되어 시애틀 한인회에서는 일주일 앞당겨서 3월 26일 토요일로 총영사관에 통보하였음. 라디오 방송에는 총영사는 양한인회 참석 않는다고 보도함. 하지만 이미 총영사관에 통보된 사항이기 때문 총영사가 참석하지 않아도 한인회에서는 진행키로 함
- 26일 온종일 라디오 방송 총영사 참석 않는다는 보도. 송영완 총영사 시애틀 한인회에서 44년 동안 전통적으로 시행해오던 신임총영사 환영식에 참석하였고 35개 단체와 220여명 참석 환영하였음
- 27일 생활 상담소 모금에 한인회 임원 10여명 참석
- 29일 라디오한국 방송 타코마 한인회장과 인터뷰 통보 받았으나 총영사와 11시 평통 미팅과 회관 이사님 운송과 맞물려 불참(타코마, 페더럴웨이 양한인회에서 시애틀 한인회 공격성 인터뷰에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 대응하지 않았음)
- 30일~31일 신화관 이사 준비 완료 페더럴웨이 창고 빌려서 2일 동안 완료(이광술 흥정자 박정남 노대성 외 멕시코 2명)

2011년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활동



5월

- 1일 서북미 학생 미술 사생대회 시애틀 센터 행사에 참가 후원금 전달함
- 5일 한국 자유총연맹 시애틀(서북미) 지부회 개소식, 지부회 회장으로 이광술 임명 받음(KOAM TV 공개홀에서 약 250명 참석)
- 7일 중앙일보 사회봉사상 시상식 금일봉 전달과 축사(이수잔, 신도형)
- 8일 워싱턴주 음악 협회와 시애틀 한인회 공동 주최 음악 콩쿨대회 참석 축사
- 9일 한글학교 모금의 밤 참석 축사와 함께 후원금 전달
- 10일 원로 골프대회 참석
- 12일 임원회 개최 시애틀어 준비와 창고 정리
- 14일 호남향우회 골프회 후원금 전달
- 16일 한인회관 공동 수습위원회 결산자료 언론 보도자료 준비
- 19일 임원회 개최(연론사 결산 자료 준비)
- 21일 시애틀 한인회장배 축구대회(축구협회 주최) 참석 축사와 후원금 전달
- 24일 한친회 참석 전직회장들에게 회관 결산 보고함
- 25일 라디오한국에서도 라디오한국 인터뷰(1시간)
- 27일~29일 시카고 미주 총연 선거와 총회에 참석



6월

- 2일 시애틀어로부터 75명으로 확정된 것 120명으로 재신청함
- 3일 임원회 시애틀어 준비모임 11명
- 6일~20일 한국 출장(세계 한인회장 대회 참석차), 시애틀어 행사가 복잡구입 미팅 서울 영화 제작소 방문, 한복 구입
- 23일 벨뷰 궁식당서 임원회 시애틀어 준비 모임(이광술 임광희 전은주 홍정자 최영자 신제니 한정열 박정남 참석)
- 25일 올림피아 6.25 참전 용사 헌화식 회장단 참석 22번째 현화함

2011년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활동



8월

- 1일 단체장 긴급 모임 총영사 주최, 광복절 공동주최로 타코마 주관으로 송영완 총영사가 원함, 시애틀 한인회서 연초부터 예약했지만 동포사회 화합 단결을 위하여 양보함
- 5일 10차 임원회 이광술, 서용환, 신제니, 최영자, 홍정자, 한하나 등 12명 참석
- 10일 7월부터 차기 한인회장 출마 서명 받는다는 제보 받음
- 11일 제5회 한인의 날 준비모임 참석, 타코마 한인회불참, 양한인회서 추천한 준비위원장 제도가 아닌 축제재단에서 준비하는 한인의 날은 시애틀 한인회에서는 참가할 수 없다 하고 퇴장했음
- 15일 광복절 행사, 킹카운티 군수 광복절 축하 메시지 행사 참석, 한국일보 주최 야구 경기 참석, 한친회 강동연 전화장 생신 축하모임, 모씨 회장 출마 서명 받은 것 사과하였음
- 19일 시애틀 한미 여성회 주최 한국 참전 용사 골프 토너먼트 참가
- 20일 타코마 광복절 행사 기념식 및 체육대회 시애틀 한인회 불참, 송영완 총영사 기념식과 체육회 참석했다는 제보 받음
- 22일 애국단체 모임(벨뷰 이창래 회장 식당서)
- 23일 다목적 회관 건립위원회 준비모임 자료 수집(정관 등)
- 24일 한국 KBS 세계로 가는 한국인 방송에 인터뷰 이은경 작가, 강준영 박사와 함께
- 25일 총영사와 미팅 신라 식당(광복절 행사에 관한 오해 관계)
- 26일 대한항공 스폰서 보잉 클래식 PGA 골프 토너먼트 참가
- 27일 강원도민회 행사 참가 KOAM
- 31일 킹카운티에서 2년 전부터 신청한 VAN 차량 제공 통보 왔음

7월

- 2일 시애틀어 모금 행사 준비모임 임원 6명 참가팀 최종 확정, 라이온스 클럽 국제팀 회의참석
- 8일~9일 연합회 회의 서북미 5개주 10개 한인회
- 10일 서만철 공주대학 총장 미팅(차세대 학생 모국 연수)
- 11일 시애틀어 출신 태권도 팀 연습 시작, 한친회 참석(신라 식당)
- 15일 라디오한국 송영완 총영사와 인터뷰, 밴쿠버 캐나다 중앙일보와 방송 제휴 관계 축하 인터뷰
- 16일 시애틀어 모금의 밤 송영완 총영사 특강, 김대중 고문 특강, \$23,000 모금
- 18일 시애틀어 본부 미팅 참가자 120명으로 확정
- 21일 제8차 임원회 15명 참석(한인회관) 홍보물 작업
- 26일 시애틀어 어가복장 부족품 타코마 서울 한복집에서 협조 받음
- 27일 제9차 임원회, 시애틀어 어가 복장 정리 정돈 수선작업 임원 14명 참석
- 28일 시애틀어 행사 준비물 트럭과 도우미 인부 모임
- 30일 시애틀어 행사 127명 참석, 어가 행렬 태권도 사물놀이, 30만 도로 관중 70만 TV 생방송 청취율 보도됨

2011년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활동

9월

3일 시카고 김종갑 회장 방문 동해 여유권 표기에 대한 운동준비
 4일 임원회 개최 명가 식당(애국단체와 공동 주최)
 5일 법륜스님 초청 정도회 참석
 12일 스노호미시 노인회 추석잔치 참가 축하, 꼬끼리 식당 총영사 주최 추석 만찬 참석
 15일 총영사관 방문(대통령 방문 소식 알고 싶어서 방문하였음) 이광술 회장은 한인회장 4년 동안 재임 중 3번째 총영사관 방문함
 17일 한국일보 주최 거북이 마라톤대회 참가 축하, 백상진 박사 건강 세미나 강연회(정우재단 주최) 참석. 625 참전용사 생존자 만찬장 참석(힐튼 호텔)
 18일 총영사관에서 시애틀 한인회에서 동포간담회 5명 참석 통보받았음. 시애틀 등 동포사회 30여년 수고한 만선 사물놀이팀 황의선 회장과 태권도사범 손창락 사범을 동포간담회에 참석 추천을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했음. 그 후 총영사관 여자 인턴으로부터 이광술씨 대통령 동포간담회 참석하겠다는 질문이 전화로 왔음 참석 고려해 보겠다고 하였음
 19일~20일 연초에 계획하였던 가족 휴가 중 총영사관으로부터 대통령 공항영접 부탁 받음. 이광술 가족은 휴가 1일은 포기하고 귀환하여 공항 영접 협조하기로 함
 21일 대통령 방문 공항 영접
 22일 웨스틴 호텔 동포간담회 참석 시애틀 한인회장이 동포대표 환영사 했으나 좌석은 대통령에서 3번째로 밀린 후 부인과의 다른 테이블로 옮겨되었음. 역대 대통령 시애틀 방문 시 처음으로 시애틀 한인회장으로서의 위치를 인정받지 못함. 총영사관에서는 상부(청와대) 지시라고 하였음, 청와대 확인한바 청와대 지시사항 아니라고 함
 23일 대통령 공항 환송(환송자중 대통령 가슴에 편지봉투 전달 사건 목격함)
 24일 한인회장 봉사 중 그동안 4년 동안 타고 다니던 Lexus RX 300 20만마일 뛰어 엔진이 망가져 고속도로에서 토잉하여 폐차 처분함. 한인회장 4년 동안 약 150,000마일 정도 사용하였음
 25일 강릉방송국 커피숍 스타박스 촬영 준비 3일간 촬영 준비해줌
 29일 제1차 다목적 회관 건립 위원회 모임 한인회관서, 건립위원장에 이광술 회장 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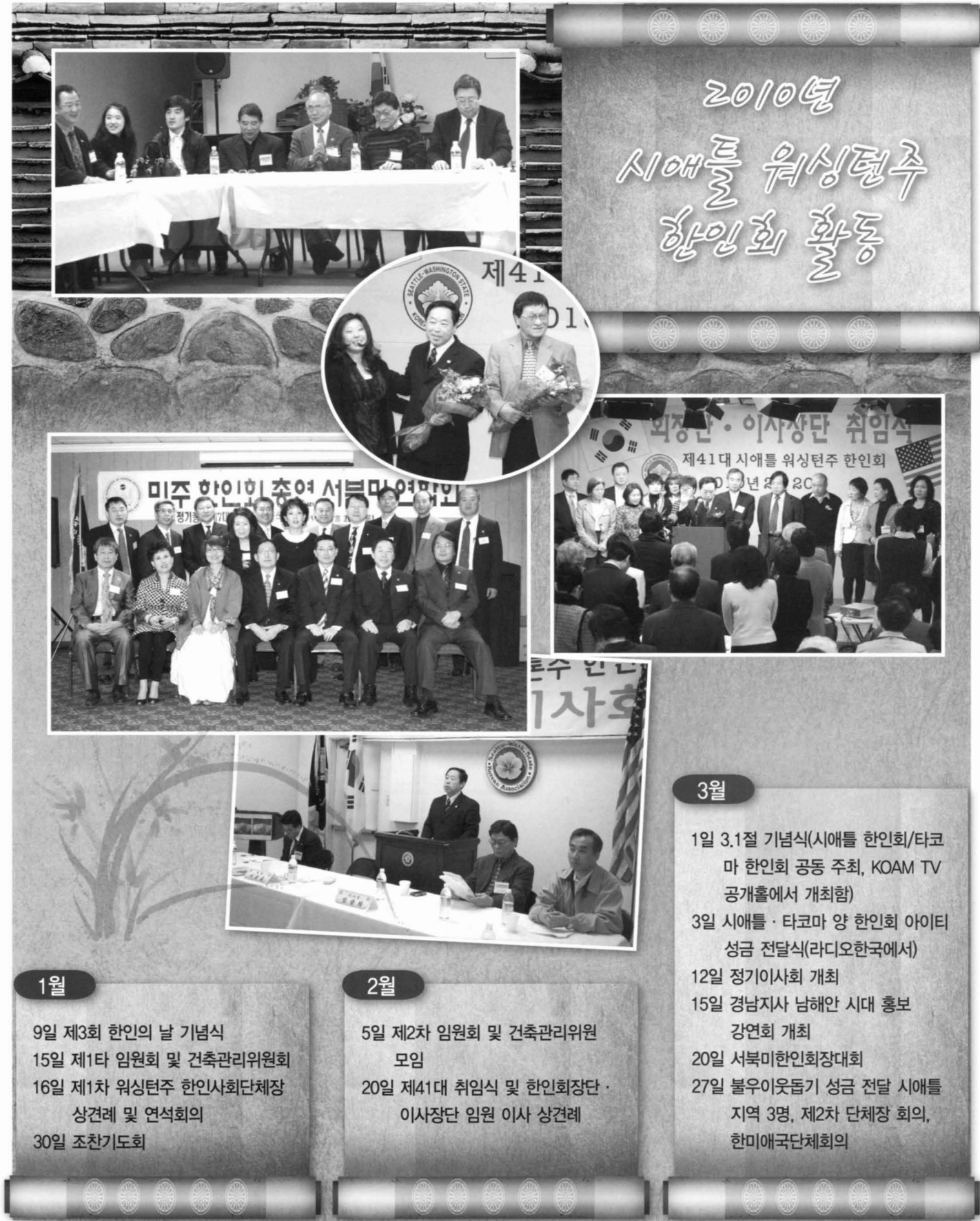
10월

1일 시애틀 한미 여성회 입양아 행사 참가
 2일 다목적회관 건립 위원회 정관 작성 재정비.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광술 재추대 받음
 12일 서병수 한나라당 시애틀 결성대회 참가
 14일 평통 Open House 참석
 15일 아시아인 개척자상 수상 차이나 허버에서 수상함. 한인사회 지도자 동료 20명 참가 축하 해주어 감사하였음
 16일 제2차 효도관광 출발. 제1차 효도 관광은 42명이 9월26일 출발하였었고 제2차에는 17명으로 관광출발이 취소될 것 같아 출발할 수 있도록 이광술 동생 2명과 함께 관광 정족수 채워서 출발하게 됨
 26일 10일간 한국서 다목적 회관 구입 지원책을 재외동포재단 신임 김영근 이사장과 국회 그리고 청와대에 로비하여 2012년에 지원해 줄 것을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음. 25일에는 세계 한미 여성회 총회에도 참석하였음
 27일 선관위원회구성 임광희 이사장과 상의함. 정관에 의하여 5인을 구성하였음. 전직 회장추천에는 2명 추천에 모두 본인들이 고사하고 3번째 한원섭 전회장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확답을 받았음
 28일 선관위원회에서 한원섭 위원장 선출되었다는 보고 받았음. 선관위원에서 각 언론사에 공고함. 2008년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한인회 Donation명단과 한인회 임원 이사 명단과 함께 선관위원회 보냈음

11월

2011년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활동

2일 아카사카 식당서 아리랑밤 준비모임과 한인회보 발간 준비모임
 3일 회장 출마 예정자로부터 선관위원장에게 협박장 이메일 왔다는 보고받음
 4일 KAC 총회 참석(벨뷰 하이아트 호텔) 후원금 전달
 7일 한국일보사로부터 뉴욕에서 개최되는 미주 총영사관 지역 한인회장대회에 불참 선언했느냐는 질문받음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대답함.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 메일이나 전화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타고마 마해화 회장이 시애틀 총영사관 지역 한인회장으로 참석했다고 함 뉴욕에 알아보니 시애틀회장이 불참 선언하여 인근에서 대리 참석했다고 한다함 근거 없는 내용이었음
 9일 평통 통일 간담회 김현욱 수석 부의장 특별 간담회 참석
 10일 48세 된 막내처남 사망 소식 접함. 그동안 병원에서 위독한 통보를 받았지만 당면한 한인회 급박한 업무 때문 병문안 한번 못 가본 것이 가슴에 한이 맺혔음
 12일 형제교회 실버대학 졸업식 참가 축하
 14일 사회 단체장 회의 개최 한인회관 23개 단체와 35명 참석, 송영완 총영사 불참 참석권 설명자 김망영 영사 참가, 개인적으로 48세 처남 입관식이 있었으나 이광술은 단체장회의 주최측 진행자로 입관식에 참가 못함, 42대 회장 후보 회장 정정이 이사장 이수잔 부회장 김승에 부회장 종대드런 외 6명 등록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2011년도 한인회 회비 납부자(유권자)만 별도 구분해서 보내달라는 요청
 15일 PI Bank 창립 기념식 한친회장 강석동 회장 한인회대표로 참석 축하 화환 보냄
 16일 한인회 유권자 명단 25Pages 선거관리위원에게 보냈음
 17일 개인적으로 막내처남 장례식 참가. 한인회장 임무를 다하느라 마지막 생전 모습을 못 본 것이 아쉬움
 21일 한국 여권소지자로 워싱턴주 라이선스 교환하고자 하는 방문객 전화 받고 운전면허증에 모시고 가서 한국면허증과 교환되는 것 확인함. 아리랑밤 회보 70Pages 준비자료 준비 모임(한인회관)
 22일 한친회 신라식당 신호범 강동원 한원섭 홍승주 강석동 유철웅 오준길 이광술 민학균 강희열 등 모임에서 약 2시간동안 한원섭 선거관리 위원장에게 청문회 하듯이 공격. 한인의 날 잔금문제: 신호범 의원은 주정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오준길 전회장은 5회 한인의 날에 내놓기를 원하고 갑론을박 하다가 이광술 의견 제시: 축제 재단말만 빼면 한원섭 회장이 잔금 돌려주겠다고 하니가 원래 주최 측인 한미재단과 원래 당시 2008년도 워싱턴주 내 4개 한인회가 공동으로 추천한 준비위원장 제도에 4개 등분으로 나누어 앞으로 4년 동안 지불하도록 하자는 제의 선관위원장에게 정관에 위배되는 얘기 논의 선건위구성 왜 이사회에서 인준 또는 결의를 안받았느냐는 질문에 이광술 대담 정관에는 이사회 의결이나 인준으로 선출이 아니고 정관 제4장 1항에 전직회장 중 1명 이사 중 1명 임원 중 1명 이사회에서 2명 추천받아서 회장이 임명한다고 되었다. 이사회에서는 임광희 이사장이 추천해준 명단과 다른 분야 추천된 인원으로 정관대로 시행하여 5명을 구성해 임명하고 선관위가 모여서 선관위원장 구성하였었고 전직 회장추천도 한원섭 전회장을 처음 추천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 다른 전직회장 2명을 추천하였으나 모두 고사하였기에 3번째 추천한 한원섭 전직회장이었음을 보고함 선관위 구성은 정관에 의하여 전혀 문제없이 구성했다는 보고를 하였음
 23일 임원회 개최 아리랑밤 준비점검 12명 참석
 26일 제42대 한인회장 후보 등록 회장 서용환 이사장 방석문 부회장 최영자, 김에스터 부이사장 박기범 한정열 외 6명 등록. 자격심사에 통과 각 언론사에 당선 공고 실시하였음
 29일 아리랑밤 준비위원회 모임 준비 중간 점검과 한인회보 60 Pages 작업완료 검토함 한인회관서 준비위원회 모임
 30일 아리랑밤 초청장 인쇄물 준비하여 우편으로 300명 발송 준비완료, 연향장로교회 정문언 전도사와 행사장 준비 전화 상담, 한인회보 60 Pages 각종 자료 마감하여 최종 점검



2010년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활동

1월

- 9일 제3회 한인의 날 기념식
- 15일 제1타 임원회 및 건축관리위원회
- 16일 제1차 워싱턴주 한인사회단체장 상견례 및 연석회의
- 30일 조찬기도회

2월

- 5일 제2차 임원회 및 건축관리위원
- 모임
- 20일 제41대 취임식 및 한인회장단·이사장단 임원 이사 상견례

3월

- 1일 3.1절 기념식(시애틀 한인회/타코마 한인회 공동 주최, KOAM TV 공개홀에서 개최함)
- 3일 시애틀·타코마 양 한인회 아이티 성금 전달식(라디오한국에서)
- 12일 정기이사회 개최
- 15일 경남지사 남해안 시대 홍보 강연회 개최
- 20일 서북미한인회장대회
- 27일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시애틀 지역 3명, 제2차 단체장 회의, 한미애국단체회의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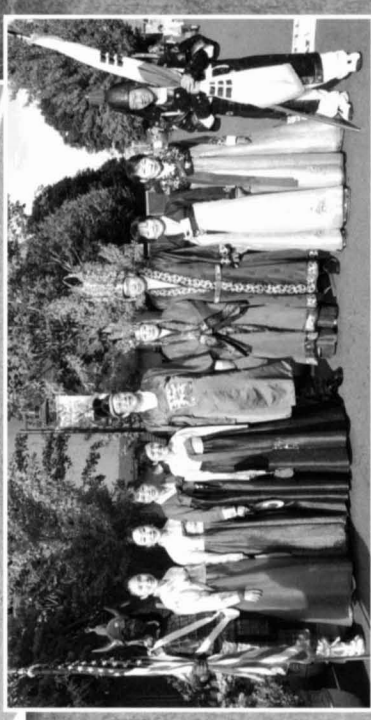
- 1일 시애틀어 신청
- 11일 교육센터 준비 모임
- 15일 경남지사 남해안시대 홍보 강연회 개최
- 21일 호도관광 출발(35명)

5월

- 3일 재외동포재단 권영건 이사장 간담회(코끼리식당)
- 6일 스노호미시 노인회 경로잔치
- 8일 신화관 문제 긴급사항 때문에 달려가다가 교통사고
- 11일 UNI Bank 용자서류 접수
- 17일 시애틀어 실행계획서 및 어가복 지원 요청서류 제출
- 18일 임원 상임이사회, 건축부 연석회의
- 22일 한인회장배 축구대회

6월

- 6일 임원회, 교육센터 그랜드 오픈 기념식
- 12일 UW 졸업식 참석
- 13일~22일 한국방문(한인회장대회 방문 중 시애틀어 준비물 준비함)
- 25일 PI Bank 용자서류 16가지 제출(이진원 지점장에게)
- 26일 재미한국학교 모금의 밤 격려사



8월

- 4일 김영진 국회의원 한인회 방문
- 6일 이광규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임원회
- 14일 광복절 기념식 시애틀어·타코마 한인회 공동 주최
- 15일 광복조찬기도회(명가식당)
- 16일 MTL 시청 미팅
- 25일 제1차 임원회 및 건축위 모임
- 28일 UNI Bank 김영석 부장에게 용자서류 다시 보냈(담당자 바뀌어 서류 분실했다고 함???)
- 31일 한덕수 주미대사 방문. 한인회는 초대되지 않고 언론보도에는 부인회와 상공회의소만 초대받았다

7월

- 6일 임원회(매주 화요일 시애틀어준비 모임)
- 10일 시애틀어 모금의 밤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 특강
- 13일 시애틀어 준비 모임
- 16일 임금 왕비 선정
- 21일 시애틀어 준비위원회
- 24일 재미한국학교 총연회의 모임
- 31일 시애틀어 참석(110명 25번 순번으로 출전 역사에 기록)

9월

- 2일 교육센터 칸막이공사 시작(한인회 운영자금으로 공사)
- 5일 공사완료
- 11일 천주교 바자회 참석 축하
- 19일 신화관 정원 시청 경철로부터 경교장 3일간 정비 완료함
- 22일 한아름마트와 아리랑밤 후원 미팅
- 24일 통합노인회 추석잔치 참석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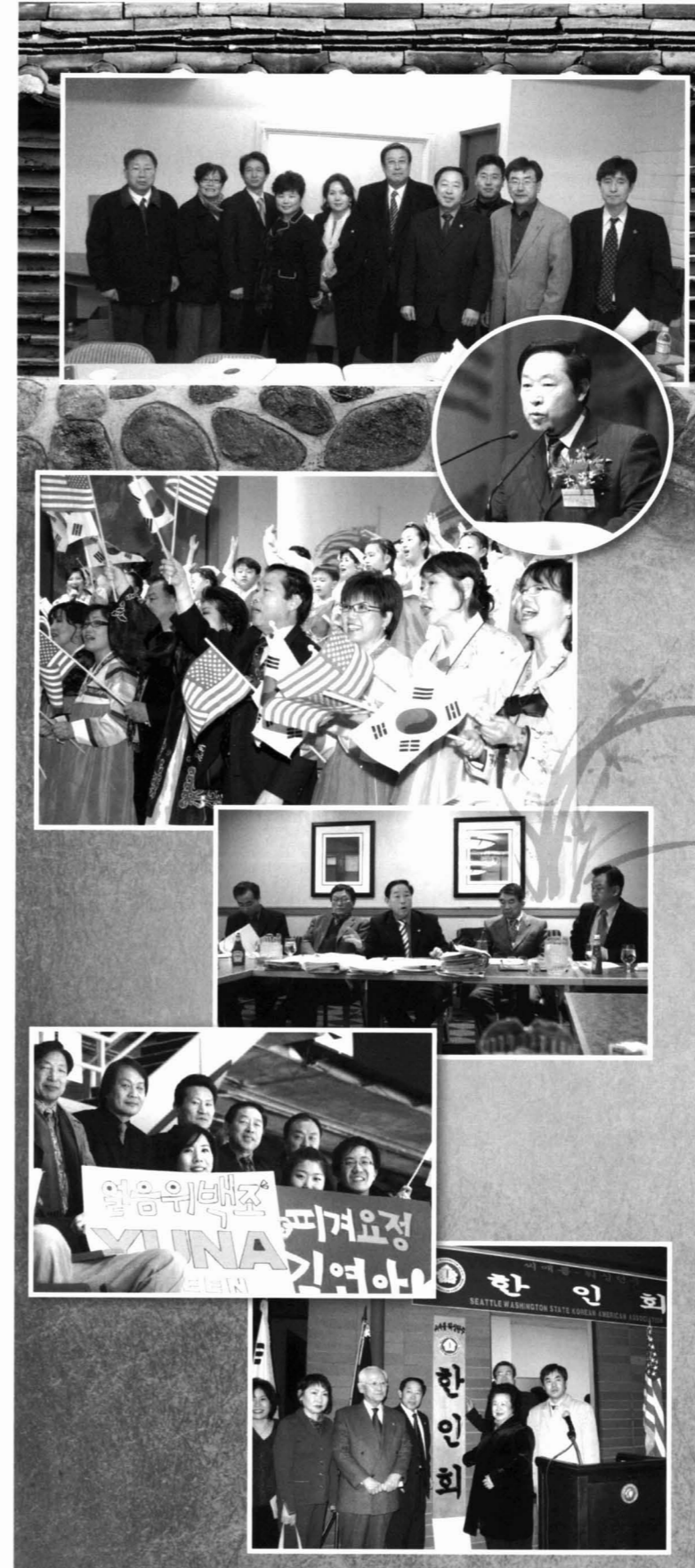
- 4일 임광희 이사장과 킹카운티 군수와 회관 문제 논의(6가지 건의사항 모두 긍정적인 대답 받음)
- 6일 효도관광 75명 출발. 공향환송식(이광술 회장, 임광희 이사장, 흥정자 지회장 참석), 한인회에서 준비한 겨울 재킷 제공
- 7일 UNI Bank 용자 땅 재조사 요청에 관한 면담. 벨링햄에서의 지회 설치 요청 서신에 대해 회장단 논의
- 8일 하반기 제2차 정기이사회. 벨링햄 지회 설립안 만장일치 통과(벨링햄에서 이사 4명 접수)
- 9일 MTL회관의자 50개 교육센터 학생 위해 준비
- 13일 제4회 한인의 날 준비위원회 모임 참석 축하
- 14일 중앙은행 창립 10주년 기념식 축하, MTL 전주인 브로커와 미팅 페이먼트 중단 선언
- 16일 페더럴웨이 민선시장 유력자 스킵 프리스트 후원회 모금해줌. 임원 약 15명 참석(가든식당). 시장 당선되면 시애틀 한인사회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함
- 20일 필수보증 구좌 Charge 관계 Wave 받음(Pi Bank로부터)
- 21일 MTL 소방검열 고깃간 지붕 물 세는 문제 해결
- 22일 아리랑밤 모금 준비모임
- 23일 북한 김정일 3대 세습제도 반대 성명서 발표
- 24일 MTL 빈자리 식당 하고 싶은 사업가 보여줌. 식당장비가 없어져 장비 시설비 요구함
- 25일 신화관 전주인 사망소식과 함께 아들과 연장이 더 힘들어졌다는 소식 들고 재회담 추진, UNI Bank 용자소식 실망, 은행 측 용자심사 끝나고 이사회에서 제동됐다는 소식 접함
- 26일 UNI Bank 용자 거절 통보 받음 큰 실망, 만약을 위해 전 주인과

- 오너 캐리 벌금 줄여 진행하는 방향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함. UNI Bank 용자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전주인과 타협 중
- 27일 아리랑밤 경매용 24피트짜리 보트 한인회 기증한 분 보트 운반 가든식당 주인집에 보관하기로
- 28일 서북미 연합회 회장단 미팅 참석, 이사회의 장소 한인회관 회의장 준비함
- 29일 연합회 이사회, 준비된 한인회 대회의장에서 진행
- 30일 총영사관에서 오찬회의 참석
- 31일 실버대학 UW 미니홀 공연 참석 (자니 윤)

11월

- 1일 아리랑밤 준비 모임
- 2일 신호범 주상원의원 4선 개표상황실 방문. 신디 류 주하원의원 초선 개표상황실 방문
- 3일 오너 캐리 주인과 브로커와 다시 충돌, 6개월마다 돌아오는 벌금문제 더 이상 페이먼트 못하겠으니 신화관 도로 가져가라고 으름장
- 4일 아리랑밤 준비 제4차 모임과 임원회 제13차 모임, 박창달 자유총연맹 총재 환영 준비 모임, 신호범 주상원의원 당선 기념식 축하
- 6일 Veterans Day Parade 참가, 비 맞고 행진 참가(6.25 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태권도팀), 한인부부 봉사팀 모임 참석
- 7일 아리랑밤 준비위원 교회 성찬철 전 도시팀과 현장 준비 모임
- 10일 상공회의소 주최 FTA 강연회 참석 축하
- 11일 박창달 자유연맹 총재 환영만찬 및 동포간담회 한인회 주최, 아리랑밤 준비 모임

- 12일 박창달 총재와 조찬 미팅 한인회 간부들과 만남, 공향환송
- 13일 한미여성회 주최 입양아 행사 참석(형제교회)
- 15일 아리랑밤 초청장 발송 250명
- 16일 공동위원 3명과 함께 구회관 판매 문제 건으로 변호사와 만남
- 17일 전주인과 (MTL) 브로커와 다시 대화 시작
- 18일 아리랑밤 준비 모임, 제15차 임원회 겸 오너 캐리 서류 임광희, 김기현, 이광술 서명함. 벌금 50% 줄이고 이자 10%에서 7%로 내리는 문제 서명 제출함
- 19일 16일부터 이광술 회장 개인 이사해야 하나 한인회 일 관계로 트럭만 빌려 놓고 사용 못함. 이날부터 조금씩 이사 (새로운 주소 22714 42nd PL S. Kent, WA 98032)
- 21일 이사 완료, 눈이 오기 시작함
- 22일 연평도 북한 공격사건 접하고 임원·이사 비상연락, 신화관 시청에서 주차장 눈 치우라는 지시받아 대처함
- 23일 연평도 사건 북한 규탄 성명서 발표, 시애틀·타코마 양 한인회 공동성명서 각 언론사 통해 발표함
- 24일 King5 TV에서 북한공격사태 인터뷰 요청, 한인회관서 실시함
- 27일 아리랑밤 준비모임 및 임원회, 청우재단 송년회 한인회에서 10명 참석함, 음악협회 주최 서해경 피아니스트 공연 참석(6명)
- 29일 아리랑밤 준비위원 실무자 모임, 참석자 명단 최종 점검 논의, 한인회보 마감 준비 썬 프린트사와 최종 점검, 행사준비사항 35가지 모두 점검함으로써 12월 실시할 예정인 아리랑밤 준비에 마지막 5일 전 준비에 박차를 가함



2009년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활동

1월

- 2일 각 언론사 방문 제2회 한인의 날 행사안내와 2009년 한인회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10일 시애틀 기독교교회연합회 신년 조찬 모임 참석
- 17일 제2회 한인의 날 행사(약 800명 참석)
- 19일 건축관리위원회 비상 모임, 한인회관 수습준비 대책 모임
- 23일 미주 한인 총연합회 중앙상임 이사회 참석(LA)
- 26일 상공회의소 주최 단체장 경제 간담회 축하
- 31일 정운찬 전 총장 경제세미나 개최 축하

2월

- 2일 건축관리위원회 모임
- 3일 김연아 선수 캐나다 시합 응원단 준비
- 4일 대한체육회와 함께 캐나다 김연아 경기 응원 참석
- 7일 한국문인협회 워싱턴지부 문학시상식 참가
- 10일 제2회 한인의 날 결산 준비모임(명가 회의실)
- 13일 건축관리위원회 모임(오너캐리 문제)
- 14일 대한체육회 회장 취임식 축하
- 20일 한인회관 사무실 오픈 및 현판식
- 21일 세탁협회 회장 취임식 축하
- 22일 한인회관 사무실 첫 출근 임원회
- 24일 타코마 한인회 주최 제2회 단체장 회의
- 28일 건축관리위원회 모임

3월

- 1일 3.1절 기념행사 시애틀 타코마 합동행사 주최
- 5일 미주 전국 목사대회 참석
- 6일 제2회 한인의 날 결산보고 및 해단식
- 11일 박성수 CPA 세금납부액 \$200,000에 대해 최소금액으로 탕감 받음
- 12일 세계 기아대책 한국본부 훈련단의 주정부 방문
- 14일 서북미연합회 회의 참석
- 15일 시애틀행사 신청서 접수
- 18일 한인회관 10인 공동 수습위원회 첫 모임
- 25일 한국기아대책 세계총회장 정정섭 회장 미팅
- 28일 대한체육회 체전준비 단체장 모임
- 31일 한인회 2009년 제1차 이사회 개최 (KOAM TV 공개홀), 2008년 사업보고 및 결산 보고, 건축위 재정보고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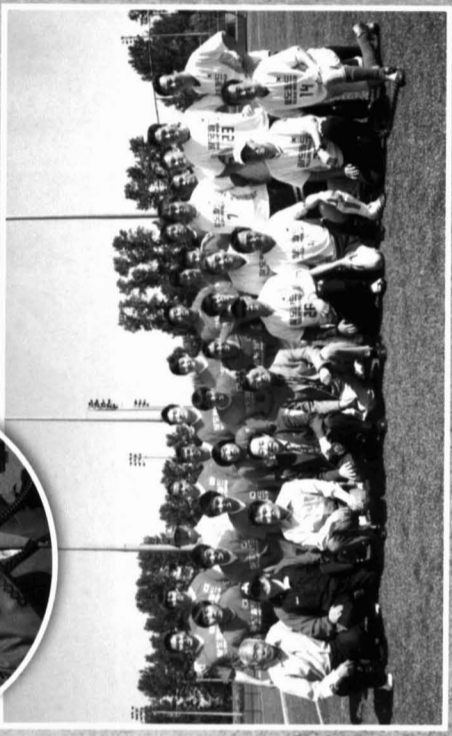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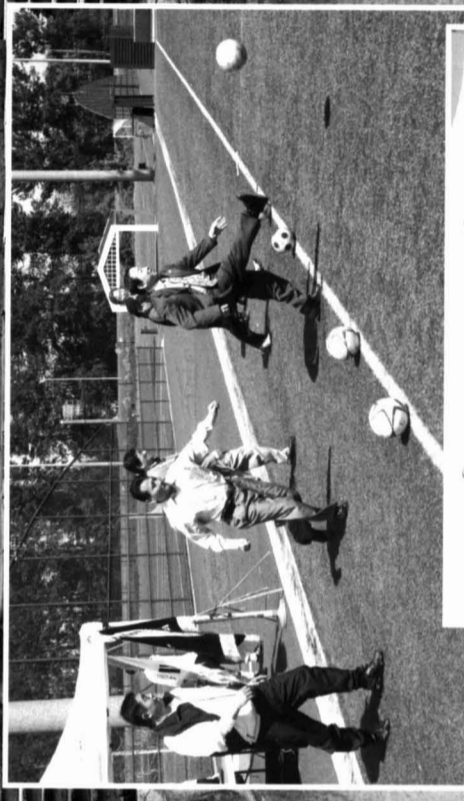
- 7일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모임 참석
- 9일 한국기아대책 미주 본부 발기대회 참석
- 13일 한아름마켓과 AKC 건축회사 소송건 중재 역할
- 14일 한아름마켓과 AKC 건축회사, 소송 이전 대화로 풀이기로 합의, CBMC 모임 참석
- 18일 체육회 기금 모금 마련 준비모임
- 23일 한아름마켓 AKC 최종 합의
- 30일 한국인의 동산 준비위원 구성 및 결정



5월

- 1일 한국인의 동산 준비 미팅
- 2일 호남향우회 불우아동돕기 기금모금 골프회 후원
- 3일 장우재단 임원회 참석
- 4일 스노호미시 노인복지회 대한부인회 공동주최
- 6일 Uni Bank 행사 참석

- 8일 중앙일보 사회봉사상 시상식 참석 축하
- 9일 서북미 학생 미술사생대회 참석, 여성부동산협회 기금 마련 골프대회 후원
- 15일 한우리축제 참석
- 16일 한국일보 주최 거북이 마라톤대회 참석 축하
- 18일 벨뷰 시애틀 통합한글학교 모금 축하 및 후원
- 19일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회 시국강연회 참석
- 22일 한인회관 공동 수습대책위원회 모임
- 23일 축구협회 주최 한인회장배 축구대회
-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조문
- 26일 한국교육청 미주 방문자와 영어장학생 모집 관계자 모임
- 28일 KAC 회장 취임식 참석, 체육회 주최 기금모금 바자회 참석



6월

- 1일 한국인 동산 건립준비 미팅
- 3일 한인경제 100분 토론회 참석
- 4일 체육회 주최 기금모금 심수봉 공연
- 7일 한미여성회장 취임식 참석 축하
- 9일 한국인의 동산 건립준비위원 묘지 현장 답사
- 12일 미주 총연 주최 FTA-LA 대회 참석 2박3일
- 16일 해외동포 본국 종합검진에 관한 상담
- 18일 신화관 소방 검열 지적사항 27지 시정
- 20일 주청사 6.25 참전유사비 한화식 참석, 세계 한인회장대회 6월 20일~7월 1일 한국 출장
- 22일 한국기아대책본부 방문(미주본부 시애틀 유치 관련 미팅), 장영철 목사와 함께 기아대책본부 회장과 만남
- 24일 전통의상 무로 대어 협약
- 27일 총영사관 한인경제협의회 회의 참석
- 29일 한양대학 병원장 종합진단 관계 미팅
- 30일 금호그룹 바자회 부회장과 기금모금 회의



7월

- 1일 이광술 회장 한국방문 후 귀국 (시메어용 공중복 지참)
- 2일 신화관 시청 수리요구 피맛기간 연장 관계 미팅
- 9일 페더럴웨이 지역 각 업소 도네이션(하나비스당 외 몇 업소에서 협조), 박성수회계사 부친상 참석
- 10일 한국인의 동산 Dignity 회사 Lynnwood Flow Hill 현장 재확인
- 14일 원로골프회 참석
- 17일 대한축구회 해단식 참석
- 18일 시메어 모금의 밤 행사 170명 참석 약 \$21,000 모금
- 19일 재외동포신문사 회장 말찬 및 간담회
- 24일 평통출범식 참석
- 25일 60주년 시메어에 참가 어가 행렬, 시물놀이 태권도팀, 무용팀 등 220명 출전팀 참가
- 27일 청우재단 주최 남진 환영 만찬 참석
- 31일 공동수습위원회, 한국인의 동산 준비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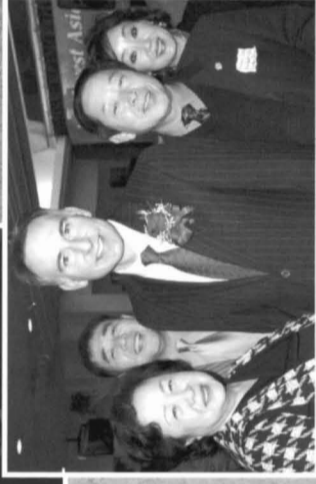


8월

- 1일 한국문화예술협회 주최 단체장 모임 참석
- 2일 이상규 타코마 한인회장 모친상 참석
- 4일 광복절행사 준비위원 모임
- 6일 광복절행사 참석
- 8일 타코마 한인회 광복절행사 참석
- 10일 한국일보 주최 매리너스 야구경기 한국인의 밤 참석
- 11일 원로골프회 참석
- 13일 다음기획 윤도현 밴드 환영식 참석
- 14일 레인보우 메이커 세탁기와 컴퓨터 증정식(리아 암스트롱 총회장, 한미여성회 합동)
- 15일 광복절 기념식 250명 참석, Dignity 회사에서 오찬 대접
- 16일 페더럴웨이 한인장로교회 방문
- 17일 김대중 전 대통령 분양소 설치
- 19일 김한욱 전 국회의원 강의 참석
- 23일 한친회 आयु회 참석

9월

- 1일 평통행사 참석 흥재형 통일원교육원장 특강
- 2일 신화관 오염 공사 현장 방문
- 4일 평통 제147회 회장단 초청 만찬
- 6일 한국 KBS 방송국 시애틀 한인회 소개 인터뷰
- 8일 워싱턴주 원로골프대회 참석
- 11일 신화관 오염처리장 방문
- 12일 한국문화예술축제 참석 축하
- 17일 한국인의 동산 Dignity 회사 간부들과 미팅
- 18일 워싱턴주 미국 해병전우회 기금 모금 골프회 참석
- 21일 호도관광 공항 환송식
- 24일 한국인의 동산 최종계약서에 관한 설명회
- 26일 청우재단 주최 위문공연 참석
- 29일 신화관 오염 제2장소 처리현장 방문 확인



10월

- 1일 신화관 소방검열 통과, 현장 답사
- 3일 음악인 동우회 공연 참석
- 6일 한인회관 수습 공동위원회 모임, 3/4분기 정기 이사회 개최
- 8일 상임이사회
- 9일 서울의료원 수술환자 한인회 추천서 발급으로 할인혜택
- 15일 신화관 시청 소방검열단 최종 인스펙션 논의
- 18일 KBS 방송 취재팀 한인회관 방문
- 19일 이기택 평통 수석부의장 특강 참석
- 24일 한국문인협회 회의 참석
- 26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UW 박사학위 수여식 참석, 제41대 한인회장단 · 이사장단 선거관리 위원회 선거공고
- 30일 제8차 한인회관 수습 공동위원회 개최



11월

- 2일 제41대 한인회장 선거위원회, 타코마 한인회 주관 제3회 한인의 날 준비모임
- 5일 아리랑밤 및 총회준비
- 7일 세월무용단 나래공연 참석
- 8일 임을 이긴 사람들 협회 참석 축하 및 후원금 전달
- 10일 신호범 상원의원 2010 출마 후원회 준비 단체장 모임
- 11일 간척위원 모임 신화관 리스팅

- 14일 평통 총회 참석
- 16일 제41대 한인회장으로 이광술 회장 당선
- 17일 아리랑밤 장소 현장 답사
- 19일 라디오한국 인터뷰
- 20일 한미여성회 임양아 초청 만찬
- 28일 재미한국학교 교사 사은의 밤 및 모금의 밤 참석 축하 및 후원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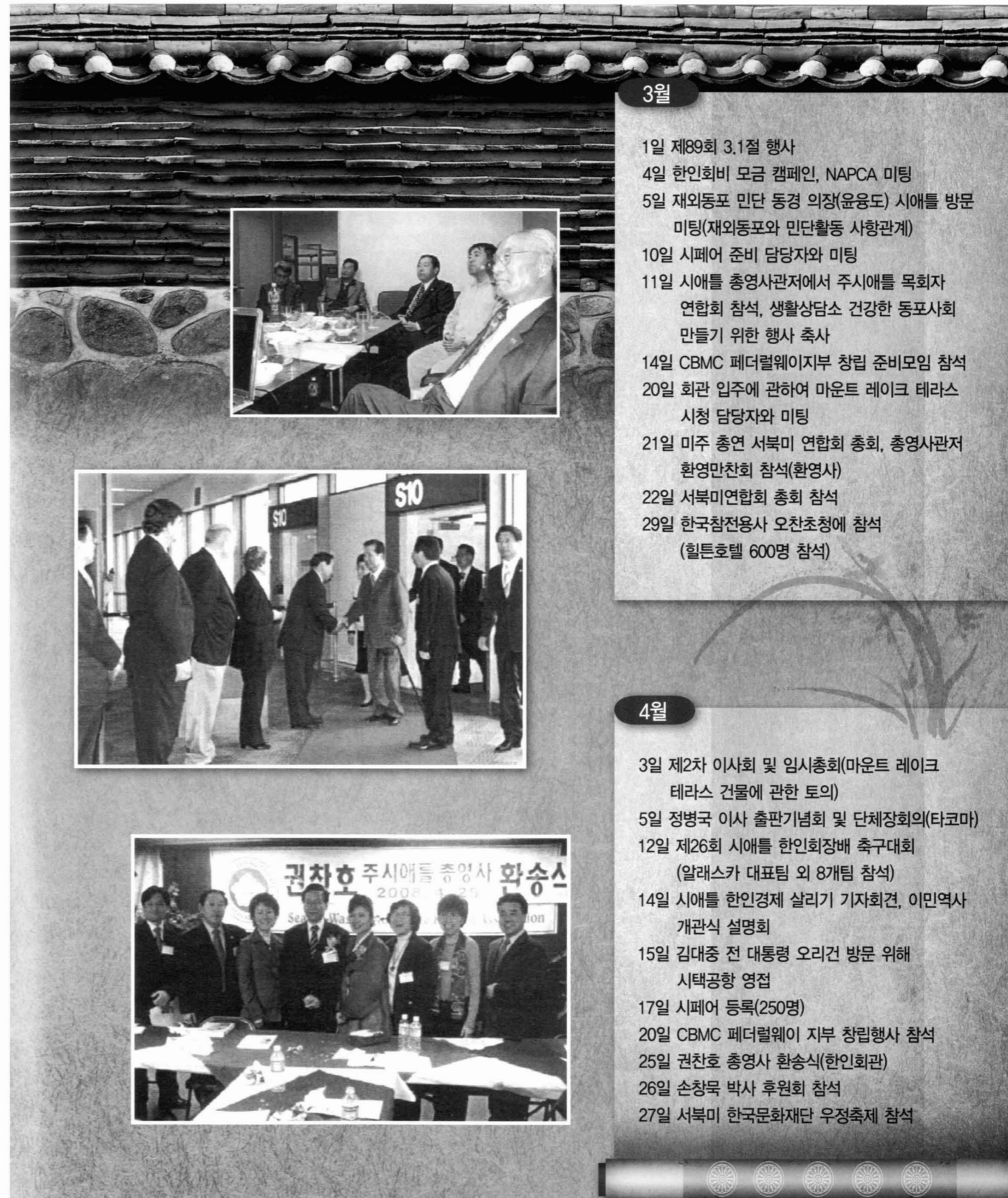
2008년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활동

1월

- 7일 제1차 단체장회의(한인회관)
- 12일 제1회 한인의 날 행사(올림피아 주청사)
- 16일 회장단 · 이사장단 모임
- 18일 중앙은행 페더럴웨이 지점 오픈기념식 참석
- 25일 회장단 · 이사장단 이취임식(디노 로시 주지사 후보, 잭 도비 페더럴웨이 시장 등 250명 참석)
- 30일 벨뷰 시청 방문 한인회 소개 및 인사 / 총영사 미팅

2월

- 5일 NAPCA 미팅 상근직원 확보 보조원 신청
- 9일 타코마 한인회 회장 취임식 및 구정맞이 행사 참석
- 10일 이사회 준비모임(회장단 · 이사장단)
- 13일 제1차 정기이사회(70명 참석)
- 15일 평통 정책토론회 참석
- 17일 회장단 · 이사장단 모임(3.1절 행사 준비)
- 18일 한친회 모임 참석(한인회 출범준비 협조)
- 21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한국 방문
- 22일 재외동포 협력과장 미팅 한인회 지원금 신청에 관해 논의
- 24일 롯데호텔에서 이명박 후보 비서실장 임태희 미팅(다목적 회관 지원금 협조요청 및 참정권, 총영사관 교육부 영사 부활 요청)
- 24일 한인생활상담소 행사에 임원 10명 참석
- 28일 청와대로 전보된 유복근 영사 환송연 겸 축하연 참석



3월

- 1일 제89회 3.1절 행사
- 4일 한인회비 모금 캠페인, NAPCA 미팅
- 5일 재외동포 민단 동경 의장(윤용도) 시애틀 방문 미팅(재외동포와 민단활동 사항관계)
- 10일 시페어 준비 담당자와 미팅
- 11일 시애틀 총영사관에서 주시애틀 목회자 연합회 참석, 생활상담소 건강한 동포사회 만들기 위한 행사 축하
- 14일 CBMC 페더럴웨이 지부 창립 준비모임 참석
- 20일 회관 입주에 관하여 마운트 레이크 테라스 시청 담당자와 미팅
- 21일 미주 총연 서북미 연합회 총회, 총영사관저 환영만찬회 참석(환영사)
- 22일 서북미연합회 총회 참석
- 29일 한국참전용사 오찬초청에 참석 (힐튼호텔 600명 참석)



4월

- 3일 제2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마운트 레이크 테라스 건물에 관한 토의)
- 5일 정병국 이사 출판기념회 및 단체장회의(타코마)
- 12일 제26회 시애틀 한인회장배 축구대회 (알래스카 대표팀 외 8개팀 참석)
- 14일 시애틀 한인경제 살리기 기자회견, 이민역사 개관식 설명회
-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 오리건 방문 위해 시택공항 영접
- 17일 시페어 등록(250명)
- 20일 CBMC 페더럴웨이 지부 창립행사 참석
- 25일 권찬호 총영사 환송식(한인회관)
- 26일 손창묵 박사 후원회 참석
- 27일 서북미 한국문화재단 우정축제 참석



5월

- 1일 사랑의 골수기증운동 참석
- 5일 시애틀 벨뷰 통합학교 후원의 밤 행사 참석
- 6일 생활상담소 모금 참여, 임원 권찬호 총영사 시택 공항 전승 참석
- 9일 중앙일보 주최 사회봉사자상 행사 참석
- 10일 서북미 미술협회 사생대회 참석
- 11일 효도관광 출발(성석영 교육부장)
- 12일 임원회 모임(미리내 식당)-사랑의 골수기증 운동본부를 한인회에 소속하기로 협의
- 13일 이하룡 신임총영사 부임 공항영접/평통 통일포럼 참석
- 14일 회장단 · 이사장단 긴급 모임
- 15일 이하룡 신임총영사 시애틀 워싱턴 한인회 방문
- 17일 한인경제살리기 박람회(벨뷰 메리엇 호텔)
- 19일 회장단 · 이사장단 한인회 1일 근무제 실시
- 23일 이하룡 총영사 환영식(베스트 웨스턴 호텔)
- 31일 골수환자에게 사랑의 골수기금 전달 (유진규 박사)



6월

- 1일 대전광역시 한인회 임원 및 사회단체장 간담회(차이나하버)
- 3일 제2차 한인경제 살리기 준비 미팅
- 9~13일 한국이민역사박물관 개관식 참석
- 21일 6.25 참전용사 헌화식 참석, 민주평통 주최 탈북자 평양예술단 공연 참석, 서북부연합회 기독교실업인회 골프대회 참가
- 22일 셋별문화회관 전통문화 기금모금 참석 축사
- 23일 NAPCA 미팅
- 24일 제2차 임원회(하나비식당)
- 25일 조국 안정기도회 참석(한인연합장로교회)
- 26일 문인 수필가 행사 참가 축사
- 27일 총영사관 한인경제협의회 회의 참석
- 28일 KAC 골프대회 참석, KOAM TV 공개홀 문인협회 시낭송회 참석



7월

- 8일 회장단 미팅
- 10일 한친회 모임에 참석(시페어 준비 보고 -신라식당)
- 11일 만선사물놀이팀 회장단과 시페어 진행에 관한 미팅
- 12일 손창묵 박사 주 경제장관 후원 준비모임 참석
- 16일 ACRS 미팅, 임원이사회(시페어 준비 모금의 밤 행사)
- 17일 시페어 어가행렬복장 150벌 정비 작업
- 19일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 आयुषि 참석
- 22일 시페어 모금의 밤 행사 120여명 참석 \$21,000 모금
- 24일 제4차 임원회, CBMC 중앙회장 일행 한인회관 방문
- 25일 CBMC 중앙회장 조찬모임 참석
- 26일 시페어 참가 250명, 한인회 74번째 출전
- 27일 조명숙 화가 16회 미술전시회 참석



8월

- 1일 임원회(벨뷰타워)
- 2일 여성부동산협회 골프토너먼트 참석
- 5일 한국일보 주최 시애틀 매리너스 야구경기 참석 (세이프코필드)
- 6일 외환은행지점 개업식 참석
- 8일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신임회장단 취임식 참석
- 9일 타코마 한인회 광복절행사 참석
- 12일 제3차 단체장회의(구 한인회관)
- 15일 제63회 광복절 기념식 행사(한인회관), 회장단 · 이사장단 회의
- 17일 한인연합 장로교회 입당식
- 31일 구회관 Move out

9월

13일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 골프대회 참가
ACRS 모금의 밤 참석



김연아 선수 시애틀서
첫 금메달(시애틀한인
회 후원) ◀▶

10월

3일 세계 한인회장대회(서울)
4일 제2차 효도관광 출발
15일 유니뱅크 2주년 기념식 및 신입행장 취임식
18일 총영사관저 서북미연합회 만찬회의석상 참석
22일 김연아 선수 최종시합 응원단 200여명 참석
셋별무용단 UW공연 참석
29일 제2회 한인의 날 준비관계 4자 회담
(이광술, 신호범, 한원섭, 강동언, 이정주)
30일 한인의 날 행사 준비 사회단체장 모임
(아카사카 식당)



11월

4일 임원회(미락식당) 아리랑밤 및 회보 발간
준비작업
6일 한친회 참석(한인회 경과보고)
8일 재미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모금의 밤 참석
10일 임원회(아리랑밤 준비)
11일 제2차 한인의 날 준비 모임
14일 설운도 위문 공연 참가(새생명문화센터)
18일 제3차 한인의 날 준비모임/임원회
20일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 시인 책 발간회
참석(KOAM TV 공개홀)
23일 아리랑밤 2부 순서 준비팀과 미팅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

◊ L.A. 사무국: 3727 W. 6th Street, Suite 406, Los Angeles, CA 90020 • info@koreanfedus.org • Tel. 213-234-9191 • Fax. 213-234-9192

문서번호: 미총22-09-3-31

수 신: 6개 지역 한인회연합회 및 11개 도시 지역한인회 회장 제위

발 신: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제 목: 신규 설립 한인회 건

참 조: 미주총연 자문위원장

날 짜: 2009년 3월 31일

미주 한인동포사회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각 지역 한인회 연합회 회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각 지역 연합회 및 11개 도시 지역 한인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난 2월 재외동포에 대한 참정권 부여가 국회를 통과한 후 세계 각 지역 한인회의 역할이 크게 대두되면서 미주 역시 기존의 한인회의 행정 구역을 무시한 채 같은 County 나 City 내에 새로운 한인회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매우 염려되어 이에 대한 보다 진지하고 신중한 검토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각 지역 연합회 회장님들께 이에 대한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의 입장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비록 한인회가 그 지역의 한인들을 대표하는 자생적 단체이긴 하지만 30년이 넘는 미주총연의 역사와 전통속에 현재 6개 지역연합회와 163개 지역 한인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 연합회는 그 연합회가 관할하는 주의 지역한인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미주총연의 현황입니다.

250만 미주동포를 대표하는 미주총연의 대내외적 위상 정립을 위해 참정권 부여에 따른 특정 단체나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한인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새롭게 신설되는 한인회는 인근 해당 지역 기존의 한인회의 동의와 해당 지역 연합회의 승인을 거친 후에 미주총연에 정식 지역 한인회로 등록할 수 있음을 공지하오니 각 지역 연합회 및 지역 한인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정부 주최 연례 행사인 세계한인회장대회의 초청 규범에도 저촉되는 측면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김 승 리
이사장 서 영 전
사무총장 김 길 영





北京
PEKING

Chinese Restaurant
7 Day's a week



Szechuan • Hunan
Mandarin Cuisine

16857 Redmond Way • Redmond, WA 98052
(Next to McDonald)

☎ 425-883-2681 Fax: 425-883-0204

www.peking.bite2go.com

"좋은 식품 싸게 파는 서북미 1등 할인점
팔도 월드 Paldo World"
언제나 좋은식품, 좋은가격~ 여러분 곁에는 팔도 월드가 있습니다.

팔도월드
PALDO WORLD INC.

페더럴웨이에서 있는
한국 양로원 **그린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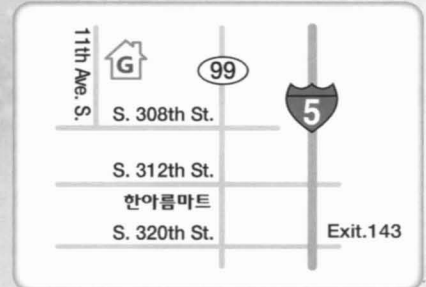
Green House Adult Family Home

"가족 부담없이 주정부 혜택으로 운영됩니다"

주정부 인가를 받은 그린하우스 어덜트 패밀리 홈(Green House Adult Family Home)은 한인 노인들의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준비된 한국형 양로원입니다. 노년을 한국에서 보내는 것처럼 한국 음식, 문화, 정서들을 나누면서 마음의 여유를 누리는 곳입니다. 병원 원목 경험이 풍부한 손현주 목사는 거주하는 모든 노인들에게 건강 식단, 정기 진료, 응급상황 대처, 개인생활 보호, 신앙지도, 특수차량 제공 등 필요한 모든 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린하우스 특별혜택과 장점!

1. 치과, 엑스레이, 랩테스트 등 환자들이 집에서 진찰받고 치료받습니다.
2. 매주 1회 이상 정규 간호사가 건강을 검진합니다.
3. 매주 주일 보수 교단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4. 가정보호원(Care Giver)들이 2명씩 24시간 대기, 친부모님처럼 모십니다!



원장 : 손현주 목사
그린하우스 어덜트 패밀리 홈 원장
병원 원목 다년간 헌신

그린하우스
1호집

1815 S. 290th St.
Federal Way, WA
98003

그린하우스
2호집

29654 20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그린하우스
3호집

30612 11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그린하우스 어덜트 패밀리 홈
(253) 508-8902

30612 11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구회관 법정문제와 신회관 판매에 관한 결산 공고

2007년

▲7월: 신회관 구입(제39대 김기현 회장·임광희 이사장)
구입가격: \$1,950,000, 부동산업자: 윤광남 부동산(건축 관리부장, 전 한인회장), 신회관 주소: 5602 232nd St. SW Mountlake Terrace, WA 98043
한인회에서 입주 못함: 오염문제와 시청에서 한인회 사업을 허가하지 않아 한인회관 공사 중 시청에서 중단시킴(붉은 딱지)
*오염 관계로 은행 융자 안 되기 때문에 Owner Carry로 2년 이내 \$1,250,000 갚아야 하는 조건과 오염도 Buyer가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구입된 것.
▲10월: 구회관 판매(제39대 김기현 회장·임광희 이사장)
판매가격: \$ 920,000(Buyer: He Nam LLC), 부동산업자: 윤광남 부동산(건축 관리부장, 전 한인회장), 구회관 구입: 1988년도(최주찬 회장 당시 구입한 것임) 1988년도 당시 구입가격: \$ 380,000

2008년

▲1월: 제40대 회장 이광술·이사장 임광희 출범
MTL(마운트 레이크 테라스 신회관 약자로 칭함) 입주 시도했지만 입주 불허, 한인회 사무실 찾을 때까지 약 6개월간 무료로 구회관 사용할 수 있다는 구두 인수 전회장으로부터 받았음. 그러나 1월부터 새주인으로부터 렌트비 내라는 독촉 받음
▲2월: 구입자(미국인 여자 에일리 퍼클린)로부터 렌트비 밀린 돈(지난해 10월부터)과 회관 비워달라는 독촉 받음. Eviction Notice 준다 협박에 김기현 건축 부장이 렌트비 수표 배달해줌.
▲7월~12월: Seafair 행사 후 구회관에서 창고 빌려서 모든 회관 재산 창고에 옮기고 나왔음(당시 집도 없는 시애틀 한인회로 비난받지만 매월 Rent \$2,500 Save 함). 집 없는 Home less 한인회로 Rent비를 아끼기 위하여 회장단 이사장단 임원 모두 이메일과 전화로 모든 행사를 성대히 치렀지만 각종 행사 준비에 빠이른 고통을 7-8개월 동안 겪었다.

2009년

▲1월: 지인으로부터 구회관 판매 건에 부정이었다는 제보를 동포사회와 각 언론사에 이메일로 제보사실을 알게 되었음.
전직 회장님들과 건축 관리부 회장단 이사장단 모임-윤광남 부동산 업자와 모두 모여 토론 이해하기 힘든 의견 충돌. 참석자: 김기현, 윤광남, 임광희, 이광술, 오준걸, 이영조, 한원섭, 김준배, 강동연, 강석동). 이날 모임에서 질의응답으로 많은 의문점을 남겼음.
▲2월: 페더럴웨이 사무실 입주(미국인 샴핑장 주인으로부터 아주 좋은 조건으로 Rent \$1200 (33100 Pacific Hwy S, Federal Way) 당시 연말 각종 여러 행사와 수영장 컨벤션 빌려서 아리랑 밤 행사 개최.
▲3월: 페더럴웨이 한인회 고경호 준비위원장, 서용환 사무총장과 미

팅. 40년 이상 전통있고 한 동네(같은 County)에서 분리되는 것보다는 한인회관 이름보다는 타운명이라든지 아니면 한인회 지부를 권유하였지만 쌍방 합의되지 않음. 이광술 회장은 고경호 회장이 차라리 시애틀 회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함. 그 대신 이광술 회장은 고경호 회장 밑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겠다고 약속함. 그 대신 절대 분열은 안 된다는 말 거듭 제안. 고경호 준비위원장 혼자 결정 못하니 돌아가서 페더럴 한인회 창립 준비위원회에 돌아가서 의논 후 시애틀 한인회에 연락 주겠다는 속제를 남기고 미팅 종료함.
▲3월 11일: 2008년부터 고심해온 IRS 세금 면제받음(약 \$200,000). 고인이 된 박성수 회계사와 김성훈 CPA 같이 수고했음.
▲3월 14일: 전직 회장과 회관 공동 수습위원회 구성기로 합의함. 신회관 구입당시 오염관계로 은행 Loan이 안돼 Owner Carry한 금액 5월에 Pay Off 못하던 회관을 빼앗기기 때문. 2009년 5월에 Owner Carry 갚아야 할 금액 \$1,250,000을 현 한인회에서 무슨 방법으로 갚겠는가라는 걱정에서 전직 회장이 금액을 모금하는 조건으로 공동 수습위원회 구성 함(이광술, 임광희, 김기현, 서용환, 박석문, 이영조, 강동연, 오준걸, 강희일, 한원섭). 전분분야 구성-한원섭: 구회관 판매 문제점 담당, 오준걸: 오염문제점 담당
▲4월 24일: 구회관 판매문제에 관한 건 법정 소송하기 전에 부동산 업자인 윤광남 전회장과 공동 수습위원 여러 명이 다방면으로 합의를 찾았으나 윤광남 회장은 합의점 못 찾음.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제기하기로 공동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함.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기로 함.
▲7월 23일: 정상기 변호사로부터 윤광남 건 법정 소송제기 파일했다는 보고 받음. 소송 상대자-윤광남, Preview Properties, Lisa yoon, Peter Yoon, Hae Nam LLC
▲10월 9일: 오염처리 완료된 최종 허가신청서 주정부 접수되어 있는 것 확인함.

2010년

▲4월 20일: 주정부로부터 오염 결과 받았음(No Further Action).
▲5월 11일: UNI Bank에 융자신청 함(오염 끝나면 용자해주시기로 약속하고 언론사에도 공개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언론 보고 하였음). 약 10일 동안 모든 자료 준비하여 용자 서류 제출하였음.
▲6월 25일: UNI Bank에서 융자 소식이 없어서 PI Bank에 16가지 용자서류 제출하였음.
▲7월 15일: PI Bank에서 용자 거부 통보 왔음.
▲8월 16일: 이광술 회장이 UNI Bank에 우리 한인회 용자 언제 나오고 질문하니 용자담당자가 휴가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함.
▲8월 28일: UNI Bank 김영석 부장이 용자 서류가 없으니 다시 보내달라고 함. 어찌구무 없는 일. 은행에 이미 제출되어 용자가 이미 나왔어야 하는데 서류조차 없어졌다니 이해가 어려웠다. 할 수 없이 다시 모든 자료 재신청하였다. *용자가 나오기까지 한인회는 전 주인에게 6개월마다 \$18,000 벌금과 이자도 거의 10% 선까지 올라가는 셈이라 용자가 안되는 것이 한인회에겐 막대한 손실이었다.
▲9월 22일: 이광술 회장 이창열 행정에게 용자관계 진행을 알아보니 다음 주중 지급된다 는 반가운 소식 받았음.
▲10월 7일: UNI Bank에서 연락이 왔다. 이사회에서 용자가 잠시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접함. 이유는 건물전체에 다시 오염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10월 9일부터 Payment 중단하고 벌금도 중단하고 Agent와 중재를 3개월 정도 함. 전 주인과 투쟁하던 중 그 방법이 합의 되어 월 한인회 재산이 상당히 Save됐다.
▲10월 24일: UNI Bank에서 오염 재조사 통보.
▲11월 16일: 구회관 소송건 Deposition(윤광남, 변호사 3명과 임광희, 김기현, 이광술, 한원섭, 과 한인회 변호사와 Deposition을 가졌음)
▲12월 23일: Owner Carry한 것 Payment 3달 중단한 것 이자 10%에서 7%로 내리줄 것을 2달 만에 전 주인이 허락함. 밀린 Payment 갚기로 함. 전 주인 Agent가 많은 중간 역할을 하였음.(UNI Bank에서 용자해준다는 이자보다 좋은 조건이었음)

2011년

▲1월 9일: 제10차 공동 수습위원회-신회관 판매에 관한 최종 가격 조정함, Broker 견정 참여 보고함.
▲2월 7일: 구회관 판매건 법정문제 Mediation 참가. 윤광남, 부동산 업자와 그 변호사 참가. 한인회 측 참가자: 한인회 대표 강석동 한인회장, 이사회 대표 임광희 이사장, 이광술 회장, 사회단체와 이사회 대표 홍현성 상공회의소 이사장, 공동수습위 대표 한원섭, 건축 관리부 김기현 전 회장. *법정 재판 가지 않고 합의점을 찾기위해 8시간동안 협의했으나 합의점 찾지 못함.
▲3월 2일: 제12차 공동 수습위원회(윤광남 법정문제 합의사항에 한인회에서 결의함. 합의금 \$175,000으로써 법정 문제 종결함)
▲3월 21일: 구회관 판매건 윤광남 법정문제 해결점에 관하여 정상기 변호사 설명회 겸 기자회견 가짐(한인사회지도자 및 임원이사 중 34명 참석)
▲3월 24일: 신회관 Escrow에 필요한 최종 자료 이광술 회장 직접 이메일과 팩스로 완료 함.

〈이광술 회장 재임기간 중 한인회 재산을 위해 SAVE한 금액〉

- 2008년 회관 구입과 판매에 관한 세금 약 \$200,000
-당시 박성수 회계사와 김성훈 회계사, 이광술 회장이 합동으로 약 6개월 동안 노력으로 면세받음.
- 2010년 1월 Tenant 미국인 운영 고깃간 Rent비 약 \$2,000 인상 성공.
-\$2,000×13개월=\$26,000(엑스트라 수익금)
- 이광술 회장이 2010년 3월 IRS로부터 받은 세금 연체 벌금 \$4,600을 IRS와의 5차례에 걸친 끈질긴 대화 끝에 면세 받음.
- 스노호미시 카운티에서 신회관 장비세 \$400 면세 받음(장비 없어졌는데).
-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신회관 상가 건물 Management Fee 10%를 상임 Broker 사용하지 않고 이광술 회장이 자격증으로 무료봉사.
-월 평균 Rent 수입금 \$7,000×36개월×10%=\$25,200(100% 봉사함)
- 고깃간에 Triple net도 부과함(월 \$400×12=\$4,800)
- 2009년 5월부터 Owner Carry 2년 연장하면서 6개월마다 내는 벌금과 \$12,000과 \$18,000

〈신회관 판매 에스스로 보고〉

▲구입가격: \$1,950,000 ▲구입연도: 2007년 7월
▲판매가격: \$1,545,000 ▲판매연도: 2011년 3월 25일
▲2007년도 구입가격에 비하면 약 22% 손실임. 이 가격은 현재 마켓 가격은 보통 30% 이상 떨어졌기때문. 현마켓에 비하면 좋은 가격으로 판매된 셈입니다.

	CHARGE SELLER	CREDIT SELLER
Sales Price		\$1,545,000.00
Loan Payoff to RICHARD J. DAVIS FKA LABRADOR PROPER	1,250,000.00	
Interest from 03/16/11 to 03/28/11 @\$235.23	2,822.76	
TENANT SECURITY DEPOSIT TO BUYER	2,300.00	
CLOSING DELAY CREDIT @\$100 PD 2/13~3/25		4,000.00
County Taxes from 01/01/11 to 03/25/11	5,340.63	
MARCH TENANT RENTS form 03/25/11 to 04/01/11	1,843.71	
Total commission(PAID PRUDENTIAL NORTHWEST REALTY)	61,800.00	
Settlement or Closing Fee	1,450.88	
Title Insurance	2,936.39	
RECONVEYANCE TRACKING FEES	35.00	
State Tax/Stamps	27,506.00	
NOTARY FEE TO BANCERERV	95.00	
Funds Due To Seller At Closing	192,869.63	
TOTALS	\$1,549,000.00	\$1,549,000.00
Total of highlighted item(non-related sales expenses): \$12,307.10		
Seller Net Proceed: \$205,176.73		

▲신회관 주소: 5602 232nd St SW Mountlake Terrace, WA 98043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공고

구회관 법정문제와 신회관 처리(판매)에 관한 결산 공고



〈시애틀 한인회 2008년~2011년 현재 건물관리 구좌, 수입 지출 내역서〉

아래내용은 2011년 4월30일 임시총회에서 모든 처리 경과를 만장일치로 동의재청 통과된 내용입니다.

▲2008년 건물관리 구좌, 수입 지출 내역서

이월금 \$89,069.46
 총수입 \$72,637.76
 총지출 \$143,569.26
 건물관리구좌 \$15,137.96
 Money Market Account Balance \$311,711.88
 건물관리구좌 총 Balance(Checking+Money Market Account) \$326,849.84

▲2009년 건물관리 구좌, 수입 지출 내역서

이월금 \$15,137.96
 총수입 \$223,601.34
 총지출 \$229,120.11
 건물관리구좌 \$9,619.19
 Money Market Account Balance \$161,283.27
 건물관리구좌 총 Balance(Checking+Money Market Account) \$170,902.46

▲2010년 건물관리 구좌, 수입 지출 내역서

이월금 \$9,619.19
 총수입 \$180,328.62
 총지출 \$202,124.60
 건물관리구좌 -\$12,176.79
 Money Market Account Balance \$98,101.97
 건물관리구좌 총 Balance(Checking+Money Market Account) \$85,925.18

▲2011년 건물관리 구좌, 수입 지출 내역서

이월금 -\$12,176.79
 총수입 \$60,495.00
 총지출 \$48,202.29
 건물관리구좌 \$115.92
 Money Market Account Balance \$394,006.13
 건물관리구좌 총 Balance(Checking+Money Market Account) \$394,122.05



2011년 4월30일 임시총회에서 건축재정 보고와 감사보고를 한 후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갖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 시애틀 한인회관 매각 법정 소송〉

구 시애틀 한인회관(1200 S. Angelo Street)에 관하여 진행했던 법정소송이 피고들과 합의로 끝나 보고 드립니다.

- 구 회관 매각은 아래와 같이 진행했습니다.
 6/28/2007 Listing Agreement with Preview Properties/윤광남
 7/10/2007 Chris Guardian offer \$950,000
 7/12/2007 Nitze-Stagen offer \$1,000,000
 Michael's Gift's offer \$900,000
 7/25/2007 He Nam LLC offer \$920,000
 8/31/2007 Ron Sudderth offer \$950,000
 9/12/2007 Nitze-Stagen offer \$1,150,000
 10/11/2007 Pickering offer to Hae Nam \$1,080,000
 10/30/2007 Sale to Hae Nam recorded
 11/06/2007 Sale to Pickering recorded

윤광남
 Preview Properties
 Lisa Yoon
 Peter Yoon
 Hae Nam LLC

고소 내용은 피고들의 사기와 신탁의무 위반, 그리고 소비자 보호법 위반이었습니다.

3. 합의. 2011년 2월 법정 중재인을 통해서 한인회는 모든 피고들과 합의계약을 이루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마쳤습니다.
 \$175,000 시애틀 한인회에 지불.
 피고들의 법적 책임 부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건강한 순으로 세워지는 예수공동체

Expanding God's Kingdom by Strengthening Small Groups.

www.hyungjae.org

예배안내

-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15
 4부: 오후 12:50
- 영어예배: 오전 9:30
- 영어대학: (금) 오후 7:00
-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30(토)
- 중보기도: (수) 오후 8:30
- 금요기도: (금) 오후 9:00
- 순예배: 순별로 자유롭게
- SonLight(유초등부): (주일)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15, 3부: 오후 12:50
- SonLight(유초등부) 수요예배: (수) 오후 7:15
- 중·고등부 영어 예배: (주일) 오후 12:50
- 중·고등부 한국어 예배: 주일 오전 9:30
- 중·고등부 수요예배: (수) 오후 7:30
- 주일청년예배(다이브홀): 오후 3:33
- 1청년에배(UW캠퍼스): 오전 11:00
- 2청년부 모임: (금) 오후 7:30



Community Church of Seattle / 3727 240th SE, Bothell WA 98021 / Tel : 425.488.1004 / Fax:425.485.9191



대한항공과 알래스카 항공이 특별한 공동운항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미국 서부 22개 노선, 매일 58편으로 더욱 편리해진 스케줄을 제공하며
양 항공사간 마일리지 제휴 서비스로, 스카이패스 회원이 알래스카 항공편에 탑승하셔도
마일리지 적립 및 보너스 항공권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laska Airlines MILEAGE PLAN KOREAN AIR SKYPASS

www.koreanair.com

Experience global networking in a whole new scale [스케일이 다른 네트워크]

Korean Air 1-800-438-5000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청우재단
Chung Woo Foundation

“청우재단,
동포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청우재단에 왜 가입하여야 하나?

청우 재단이란?

저희 재단은 청우(淸友)라는 말 그대로 사실이 없는 청풍의 깨끗한 마음과 우애가 있는 봉사와 구제의 비영리 자선 단 체입니다. 우리 2세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고, 어려움이나 외로움으로 고생하시는 웃어른들을 위하여 사랑의 나눔을 함께 하려고 청우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청우 재단 사업 계획

1. 교민을 위한 노래 잔치
2.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생일잔치
3. 소년소녀 가장 돕기
4. 효자 효녀 효부를 위한 격려금 지원

부설 기관

1. 연수원 운영
2. 건강식품점

청우재단 회원은 아래 업소에서 요금이 \$30 이상일때, 10%~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일품목 및 보험처리는 제외)

요식업

- 가든식당(90명 연회석 완비).....253-941-2483
- 궁 식당(타코마).....253-581-0880
- 궁 식당(벨뷰).....425-957-3522
- 궁 식당(페더럴웨이).....253-529-2442
- 긴자 저페니스 레스토랑(델리버리).....253-589-0656
- 꽃매지 식당.....253-581-1200
- 북경중국식당.....425-643-1663
- 블루진저식당.....425-746-1222
- 브랑제리제과.....253-682-3488
- 아카사카 일식당.....253-946-3858
- 호순이식당(타코마).....253-584-4572

건강

- 김안과.....253-588-4225
- 기독의료원(타코마).....253-588-4015
- 노마안경원.....425-742-3777
- 동서한의원.....425-778-5691
- 서울한의원.....253-584-8649
- 시애틀추병원(에드먼즈).....425-712-0307
- 성신한의원.....425-774-1535
- 스티븐 김 치과.....253-854-3310
- 스마일 닥터 치과.....253-983-9090
- 아이조아 안경.....253-582-3698
- 유림 안경.....425-839-0600
- 정경록 치과.....425-746-1441
- 한국한의원.....206-753-8876
- 한가족 척추의료.....425-741-9927
- 황정국 물리치료(린우드).....425-742-5900
- 황정국 물리치료(페더럴웨이).....253-874-5404
- A-1 척추병원(시애틀).....206-721-7200
- A-1 척추병원(타코마).....253-830-6898
- A-1 척추병원(린우드).....425-214-1900

자동차

- B&I 콜리션.....253-583-0101
- 에이스 오토 바다.....253-838-1310
- 제페니스 오토 바다.....253-539-5040
- J.S 오토리페어.....425-640-0999

부동산

- 고은희 부동산.....253-208-9009
- 김선영 부동산.....253-202-8654
- 박태문 부동산.....206-257-8380
- 이상규 부동산.....253-988-4949
- 허정만 부동산.....206-391-3235
- 조승주 부동산.....253-232-2232

생활

- 글로벌 패션.....425-745-5546
- 꽃의 나라(타코마).....253-588-8844
- 미성가구.....253-232-2140
- 금 삼나다(예쁘다패션).....253-584-2664
- 서울 한복 이불.....253-581-9019
- 웨딩 원.....206-775-1100
- 아가페서적문구.....425-744-1114
- 볼티나 의류(타코마).....253-581-0311

뷰티

- 민경남 미용실.....253-588-0822
- H&K 뷰티 스킨.....253-582-7777
- 명품 미용실.....253-581-3383
- 수지 화장품.....253-584-4605
- 썬시 미용실.....253-582-5090
- 아반티 스킨케어.....253-983-9555
- 이화콜렉션(잡화).....253-831-5681
- 쥬리 사진관(페더럴웨이).....253-576-8265
- 풀라 화장품.....253-335-0153
- 하윤희 미용실.....425-774-9191

식품점

- 부한식품(타코마).....253-588-7300
- 부한식품(에드먼즈).....425-778-7400
- 팔도월드(타코마).....253-581-7800
- 팔도식품(페더럴웨이).....253-941-8282
- 팔도식품(벨뷰).....425-641-1614
- H-마트(린우드).....425-776-0858
- H-마트(페더럴웨이).....253-528-0500

호텔 및 모텔

- 골든 라이언 모텔(타코마).....253-588-2171
- 데이즈 인(타코마).....1-800-221-2680
- 데이즈 인(페더럴웨이).....253-686-2027
- 라마다 인(올림피아).....360-459-8866
- 레드 라이언 호텔(타코마).....253-548-1212
- 몬테스퀘어 모텔(낚시 가능).....360-249-4429
- Bes Night In(Lakewood).....253-582-7550
- Best Night In(Fife).....253-355-9200
- Best Night In(Aberdeen).....360-533-0100
- Best Night In(Ocean Shore).....360-289-3371
- (30명 수용 수영장/낚시 가능)
- 웨스턴 인 모텔.....253-588-5241
- 컴포트 인(페더럴웨이).....253-529-0101
- 퀵러티 인 모텔.....253-926-2301

기타

- 김 & 김 회계사.....253-984-9530
- 김경곤 변호사.....253-274-0201
- 노승렬 종합보험.....253-472-3977
- 니나 김 용자.....253-226-5886
- 미스터 루터(상하수도 관리).....253-588-6133
- 미소 프린트.....425-891-3730
- 박용석 변호사.....253-815-1400
- 선스 클리너.....425-670-1260
- 써니 신 변호사.....425-519-3696
- 오영석 법률회계사.....425-743-1144
- 온정숙 보험(보험 및 세무 상담).....253-353-9730
- 월드 태권도.....425-747-0773
- 영스 유리.....253-582-8126
- 제일 조정(스프링 콜러).....253-222-7321
- 한양 떡집.....253-588-7303
- 형제약국.....253-581-3426
- 현대건설(온돌시공).....253-584-3609

청우재단 Chung-woo Foundation /9325 S. Tacoma Way Lakewood, WA 98499
Tel.253-222-2216 E-mail:chungwoofoundation@yahoo.com



This certifies that
JAMES C. BUCKLEY
is a member of the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membership is limited to Trial Lawyers who have demonstrated exceptional skill, experience and excellence in Advocacy by achieving a final verdict, award or settlement in the amount of One Million Dollars or more.



금자를 가지고 고객에게 봉사하는 저희 사무소 변호사와 직원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교통사고 · 신체상해
 버클리 법률 전문가 그룹!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법률 지식으로 여러분들을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친절한 무료 상담
- 연락 당일 상담 가능
- 치료 후 2-4달내에 신속한 처리
- 근무 시간 전후 예약 가능
- 보상받는 경우에만 변호비용 요구
- 필요 시 병원 또는 자택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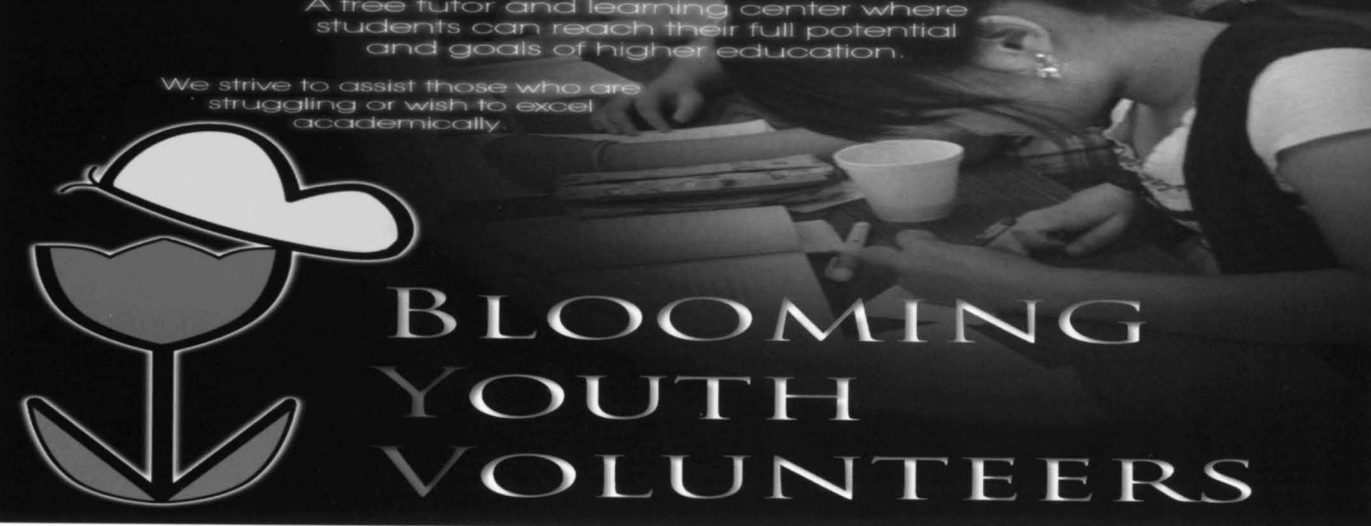
저희 법률회사는 지난 10년 동안 고객의 손해 배상 금액으로 약 7천5백만불을 받아냈으며, 1993년 이후로 8,000건의 배상 청구를 해결했습니다.
 각 고객의 사례는 다르며 과거의 결과는 그 어떤 고객도 승소를 할 경우 어떤 금액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연방법원 판사 선출특별위원
버클리 합동법률 사무소
 시애틀 사무실 (자이언타운) 타코마 사무실 (Wells Fargo Plaza)
 675 S. Lane St. Suite 300 Wells Fargo Plaza
 Seattle, WA 98104 Tacoma, WA 98402
(206) 622-1100 (253) 582-3200
 1-800-404-6200
 buckleyandassociates.net

일렉트릭 206-622-1100 팩시밀리 206-909-8289
 Cell: _____



100+ registered students from all around the Puget Sound area
 A free tutor and learning center where students can reach their full potential and goals of higher education.
 We strive to assist those who are struggling or wish to excel academically.





BLOOMING YOUTH VOLUNTEERS


<p>English Grammar SAT Vocabulary Sentence Structure</p>	<p>Math General Math Pre-Algebra Algebra 1&2 Geometry SAT Prep Pre-Calculus Calculus AB&BC</p>	<p>Korean Language Culture School Work Test Prep</p>
--	--	---

WHEN:
 Every Sunday
 3:00-5:00 P.M.


WHERE:
 33110 Pacific Hwy S #7
 Federal Way, WA 98003

For more information:
 (206) 819-7569

Email Phillip Choe at
 phillichoe253@msn.com



KIMWA-SEATTLE
 Korean Inter-Married Women's Association



한미여성회
 253-414-7442

E-mail: kimwaseattle@yahoo.com
 4761 Fernridge LN
 Mercer Island, WA 98040

워싱턴주 유일의 한국어방송
시애틀 라디오 한국



라디오한국
RADIO HANKOOK
 #1 Korean Radio Station in Washington

South Seattle: **KSUH 1450AM**
WED. 5N - 3:45P. 5N. 11:55A. 11P. 5N. 5N.
 North Seattle: **KWYZ 1230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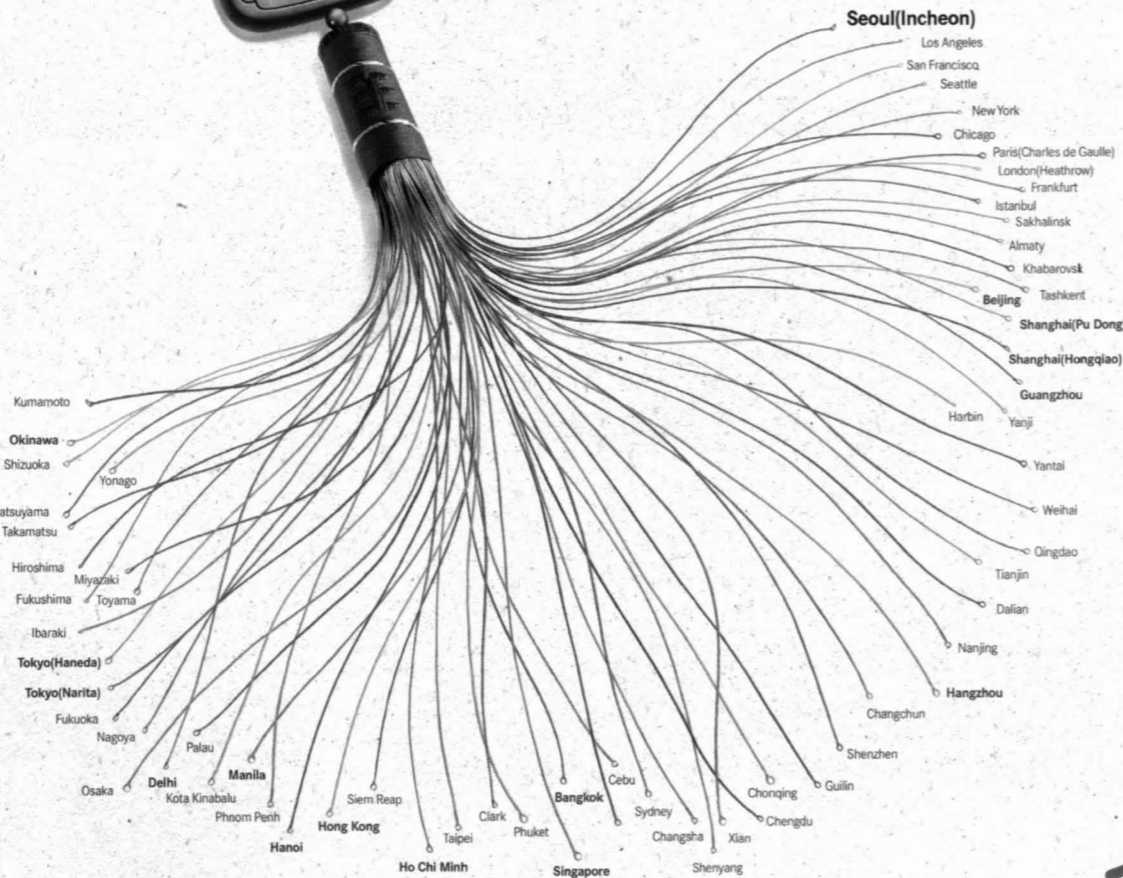
■ 전화 : 253-815-1212 ■ 주소 : 200 S 333rd St Suite #100
 ■ FAX : 253-815-1913 Federal Way, WA 98003

80 CITIES.
22 COUNTRIES.
1 AIRLINE.
ASIANA



Fly the Largest Network
from the U.S. to Asia.

When it comes to travel to Asia, come to ASIANA AIRLINES and experience the incredible comfort, entertainment, cuisine, and award-winning passenger service that has set the standard throughout Asia, and the world. And now, with even more destinations, no matter where you're going in Asia, the numbers always add up... to Asiana. The global airline in Asia.



Reservations • 1-800-2ASIANA • us.flyasiana.com
Number of destinations based on July 15th, 2011 and can be changed.

ASIANA AIRLINES

A STAR ALLIANCE MEMBER

UniBank
고객의 성공 유년의 보람
당신의 성공을 유년기가 꿈꿨습니다

이제 2012년에는 일어나셔야죠!

그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신지요?
유니뱅크와 의논하십시오.

세 희망을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유니뱅크는 고객의 파트너입니다.

www.unibankusa.com

Member FDIC EQUAL HOUSING LENDER SBA 8(a) LENDER

비즈니스 대출 | SBA 대출 | 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의 전화 (425)275-9700

전통 일식의 맛이 살아있는 전문 일식점

항상 신선한 일식요리를
정성을 다한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아카사카

OPEN HOUR

M-F 11:00-10:00
Sat 12:00-11:00
Sun 3:00-10:00

Tel: 253-946-3858

31246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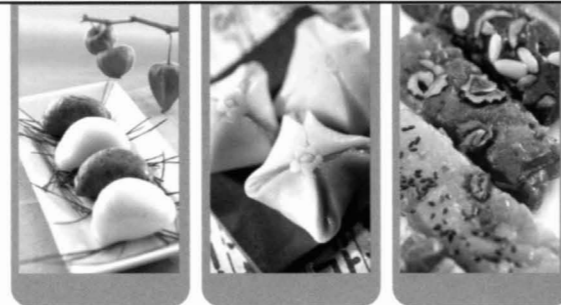


스시 / 사시미 / 샤브샤브
바베큐 그릴 / 스시바
바베큐 다다미방
살아있는 생선(제철 새우)
매운탕

맛과 정성을 다하는

We put Our Heart and Soul in Making Traditional Rice Cake

무궁화 떡집



답례용 떡 / 행사떡 / 백일떡

돌떡 / 약혼 및 결혼떡

떡케이크 / 월빙떡 / 케터링



Mu Kung Hwa Oriental Foods

T/F 253-536-6857 C 253-282-2333 E chung@comcast.net

121 131st STS / Tacoma, WA 98444

아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집전화의 표준! 아이토크비비



Global Unlimited Plan

Global Unlimited Plus Plan

글로벌 플랜

\$24.99 /월

- 미국, 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통화
-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글로벌 플러스 플랜

\$34.99 /월

- 한국인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플랜
- 글로벌 플랜의 모든혜택은 기본
-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통화!

[30일 환불 보장!]

*통근 할인 프로모션-프로모션 기간 첫 6개월을 포함해 총 24개월간의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은 행사기간 내 글로벌플랜 또는 글로벌 플러스 플랜에 가입한 신규 고객에 한합니다. 계약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69.99의 위약금 및 프로모션 기간동안 할인 받으신 총 금액이 합산되어 부과 됩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혜택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 에 있습니다.**무료 부가서비스 마이그레이션을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청구되거나 취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아이토크비비 공인 사업 파트너

253.232.9277

아이토크비비

iTalkBB

스포츠서울USA
Sports Seoul SEATTLE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0일 환불 보장 기간 이후 서비스 해지시 이미 납부한 월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통비(\$29.99)가 부과됩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으며,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s 등 미국 해외 영토의 통화는 무제한 통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청구서 대신 인터넷과 간단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식전문점

하나비

T. 253-941-0797

31260 Pacific Hwy S. #12, Federal Way, WA 98003

궁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장인 손맛으로
소중한 고객을 위한

주메뉴
Korean BBQ, 갈비, 돼지고기, 순두부찌개,
전골, 각종 생선구이 등 한식 일절

Tel. 253-529-2242

31550 20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www.rescarehomecare.com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합니다!

현재,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시다면
무료로 자택 간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돌봐 드리겠습니다.

ResCare HomeCare
미국 최대 전문 간병 서비스기관

레스케어 홈케어는 미국 최대의 전문 간병 서비스 기관입니다. 이미 수년 전 워싱턴 주 암스트롱 홈케어를 인수하고 많은 한인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정성껏 돌봐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최대 간병 서비스기관의 최고 전문 간병사들을 통해 정성스럽고 세심한 손길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레스케어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에버렛 · 린우드 425.438.2711	시애틀 206.329.4695	페더럴웨이 253.839.3700	레이크우드 (타코마) 253.584.2311
---------------------------	---------------------	-----------------------	-----------------------------

김호순 공인회계사

“이런 공인 회계사를 찾으십니까?”

정확하고 만족 할만한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정 급할땐 만나서 자세하게 상의도 하고,
어려울땐 시원하게 대화도 나누고,
고객을 대변해 주는 그런 CPA를...
작은것도 충실하게 생각하는 것,
그 한결같은 마음이 우리 고객을
기쁘게 해 드린다고 믿습니다.

김호순 공인회계사
Danielle H.S. Kim, CPA
1988 UW 회계학 전공(재정학 부전공) 졸업
1989 Peal Marwick, Guam
1990 Simpson & Simpson, CPAS, Los Angeles
AICPA Member, WSCPA Member

(253)839-9301 (253)839-0890(Fax) 28815 Pacific Hwy S. #8 Federal Way, WA 98003



2011년 기부자 명단 (2011년 1월 1일~11월 30일)

주시애틀 총영사관(재외동포재단)	\$4,000	KO-AM TV	\$200	오복록	\$100
UNI Bank	\$3,000	Snohomish 노인회	\$200	장용석	\$100
PI Bank	\$2,000	김준배	\$200	조경희	\$100
Center Bank	\$1,500	대한부인회	\$200	천안스님	\$100
박재순	\$1,500	오희원	\$200	한원섭	\$100
청우재단	\$1,300	장부관	\$200	행복노인회	\$100
권경	\$1,140	함재명	\$200	형제실버대학	\$100
허명	\$1,140	김용규	\$180	김순아	\$90
김승애	\$1,120	신제니	\$180	오준걸	\$90
워싱턴 축구협회	\$1,000	오계희	\$180	김경자	\$80
한정열	\$740	전은주	\$180	유상재	\$80
임광희	\$700	무명	\$160	손순석	\$70
미주한인총연서북미연합회	\$600	상록회	\$160	이유식	\$70
송 Shari	\$600	재미한국학교 서북미연합회	\$160	한순	\$70
도정숙	\$520	김혜주	\$150	서북미 문인협회	\$60
서영민	\$520	주완식	\$150	임현민	\$60
한친회	\$500	충청향우회	\$150	김시우	\$50
곽중세	\$420	김학병	\$140	김윤선	\$50
홍윤선	\$420	정정이	\$140	남북나눔공동체	\$50
그로서리 협회	\$400	여성부동산협회	\$130	이기락	\$50
이영조	\$400	윤부원	\$130	이동복	\$50
상공회의소	\$330	한국문인협회	\$130	이양춘	\$50
최영자	\$330	권영배	\$120	이정심	\$50
한한나	\$330	김석민	\$120	장진원	\$50
박태호	\$320	유철웅	\$120	전민수	\$50
홍승주	\$320	이성	\$120	정승진	\$50
강석동	\$300	KABA (Korean American Bar Assoc)	\$100	최지연	\$50
남희숙	\$300	Kun San Tacoma Sister City Committee	\$100	케이전	\$50
홍성권, 홍지나	\$300	KYB Farm, Inc.	\$100	홍종일	\$50
홍정자	\$300	Pewitt, Michael & Yunsil	\$100	황송	\$50
고링 영숙, 대한부인회	\$280	고봉식	\$100	권혜레나	\$40
이현기	\$270	권영창	\$100	민병국	\$40
김동진	\$260	권형규	\$100	이주영	\$40
시애틀 한미여성회	\$260	김은영	\$100	정창인	\$40
이수잔	\$220	김종구	\$100	한동호	\$40
Hanabi 식당	\$200	김태강	\$100	Wilson 옥순	\$30
KAC	\$200	박태원	\$100	김숙현	\$30

김영조	\$30	김춘자	\$20	이지나	\$20
독도홍보	\$30	김한수	\$20	이현우	\$20
박정남	\$30	김희수	\$20	임 Joo H	\$20
배상진	\$30	김희숙	\$20	임성빈	\$20
백광현	\$30	라 Byoung Hynn	\$20	임영숙	\$20
안지호	\$30	류 Cindy	\$20	임장규	\$20
이요섭	\$30	류 Cody	\$20	임태조	\$20
이창구	\$30	마혜화	\$20	장성은	\$20
이태근	\$30	문병미	\$20	장정임	\$20
이하림	\$30	민학균	\$20	정군자	\$20
이한범	\$30	박규명	\$20	정민희	\$20
조승주	\$30	박기향	\$20	정봉춘	\$20
한인생활상담소	\$30	박명완	\$20	정태나	\$20
한호정	\$25	박미화	\$20	조 Ann Y	\$20
Chae, Regina	\$20	박용성	\$20	종데르론	\$20
Christopher Y.	\$20	박정숙	\$20	주디문	\$20
Englund 샌드라	\$20	변종혜	\$20	채정민	\$20
강동만	\$20	서영기	\$20	최 Annie	\$20
강동언	\$20	성기주	\$20	최 Phillip	\$20
강병정	\$20	손 Jessica	\$20	최 Yonmi	\$20
강사라	\$20	손옥봉	\$20	최병은	\$20
고광	\$20	손창락	\$20	허상내	\$20
고은희	\$20	시애틀한친회	\$20	홍기자	\$20
고창구	\$20	심제니	\$20	홍낙순	\$20
곽노환	\$20	안명숙	\$20	홍종인	\$20
곽성국	\$20	오보영	\$20	황수자	\$20
권경락	\$20	오수경	\$20	김영철	\$10
권경의	\$20	오유석	\$20	이규진	\$10
금광운	\$20	왕엘렌	\$20	이영주	\$10
김 Sammy	\$20	우인숙	\$20	정홍섭	\$10
김 Simone	\$20	유원배	\$20	주신애	\$10
김대주	\$20	윤병설	\$20		
김도산	\$20	이 Anthony	\$20		
김명원	\$20	이 Young Cho	\$20		
김상섭	\$20	이미연	\$20		
김수영	\$20	이순옥	\$20		
김수자	\$20	이옥자	\$20		
김순녀	\$20	이윤희	\$20		
김순희	\$20	이자영	\$20		
김영제	\$20	이정희	\$20		
김옥자	\$20	이준근	\$20		
김찬영	\$20	이준성	\$20		

총계 \$38,055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비 보내주소 :
 Seattle WA, ST, Korean Asso.
 33110 Pacific Hwy S Suite #7&8
 Federal Way WA 98003

엄마의 마음 신선한 재료 저렴한 가격

★ 엄마가 편했겠다!
★ 우리가족 건강하게!
★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반찬

페더럴웨이 야미반찬

엄마의 손길이 그리우셨나요?
바쁜 일상속에 엄마손길이 느껴지는 반찬!

야미반찬

파티음식 / 백일 / 돌잔치 / 생일상 / 장례식 / 캐더링
김치, 통갈비 다양한 반찬 및 모든 밑반찬

전화 한통화로 ok

33320 Pacific Hwy S. #1038 Federal Way 98003 **253.835.0300**

화이트싸인

외부간판, 네온싸인, 메뉴보드
윈도우 그래픽, 간판수리

E-mail: bestsign911@yahoo.com

Tel. 425-745-0760

15107 Hwy. 99 #A, Lynnwood, WA 98037

모든 음식에 천연 재료만 사용하는

영월 칼국수 Youngwol Noodle

겨울철 별미

에피타이저 | 수수 부꾸미 | 찹쌀 부꾸미 | 삼색 만두
감자전 | 호박죽

메인메뉴 | 웰빙 들깨 칼국수 | 웰빙 들깨 수제비
얼큰 해물 칼국수 | 맑은 칼국수 | 바지락 칼국수
보리 비빔밥 | 지골밥상 | 무 보쌈 |
황기 삼계탕

영업시간 Mon-Sat 11:00am ~ 8:30pm

영월만의 별미,
호박죽과 콩보리밥이 언제나 **콩짜**로 나옵니다!!

영월칼국수 | 253.941.2002 | 31260 pacific hwy S #7 Federal Way WA 98003

항공권 전문 여행사

탑항공여행사

편리한 예약에서 합리적인 가격까지

[제주 2박 3일] 교포를 위한 특별가
한국 관광 5박 6일
미서부 5박 6일
미동부 4박 5일
서부 3대 캐년 관광

한국행 특별가

T. 425.640.2410 / 206.706.5506

18421 Hwy 99, Suite F, Lynnwood, WA 98037

페더럴웨이
HIMART대
OPEN

프린세스 꽃집 2호점

페더럴웨이 PRINCESS FLORIST 에서 더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아름내에 오픈하였습니다.

MEM/BER/SIP/MO/JIP

각 단체, 호텔, 교회 사무실, 병원, 일반 가정 등등

- 화분관리(영양공급, 분갈이) 및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 생화꽃 교체
- 주일 성전 꽃 멤버십 모집(특별 할인)
- 멤버십 회원 모든 꽃, 화분 특별 할인 혜택

성전 꽃

결혼

장례

행사

화환

꽃꽃이 회원모집

기초반을 위한
속성 강의

구인/페더럴웨이 지점
용모단정하고 이중언어와 컴퓨터사용에
불편하지 않은 여자분 환영

미전지역부터 한국까지 배달가능

253-838-8338 / 206-446-7985 33130 Pacific Hwy S #3 Federal Way, WA 98003

All Day **BBQ**

All You Can Eat!!

\$10⁹⁹

삼겹살+
차돌박이

정심의 별미 선골류

- 콩비지탕
- 해물 칼국수
- 김치 칼국수
- 수제비
- 각종 생선매운탕

[점심시간에만]

- 곱창전골
- 염소전골
- 해물전골

전차 스테이크

- 갈비우거지탕
- 웰빙비빔밥
- 된장찌개
- 육개장

\$4⁹⁹

건강 쌈밥

소불고기 / 돼지고기 / 고등어
3가지 중에 선택

\$6⁹⁹

휴일제외 (토, 일)

신성

캐더링 주문 받습니다. Tel. 253) 839-9292
1805 S. 316th St. Federal Way, WA 98003

신고·신청 안내문

인터넷 검색창 재외선거

투표하는 곳은 달라도
꿈꾸는 대한민국은 같습니다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 2011. 11. 13. ~ 2012. 2. 11.)

신고·신청 대상

- ① 국외부재자 신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19세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②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19세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신고·신청 방법

- ① 국외부재자 신고
 - 신고방법
 - ① 외국에 있는 사람은 공관에 신고서 제출 (우편신고 가능)
 - ② 국내에 있는 사람은 관할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신고서 제출 (우편신고 가능)
 - 첨부서류: 여권 사본
- ②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방법: 반드시 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어느 공관이나 가능, 우편신청 불가)
 - 첨부서류
 - ① 여권 사본
 - ② 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투표 관리관(공관장)이 국적확인을 위해 공고한 서류의 사본
 - ※ 첨부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으면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민은 신고나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신고·신청서는 공관배치 또는 재외선거홈페이지(<http://ok.nec.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ok.nec.go.kr>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 역대회장



BBCNbank.com

새로운 색으로 태어납니다

중앙은행이 **BBCN**으로 더 큰 가능성을 엽니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씨애틀에서
금융의 중심지 뉴욕, 뉴저지까지 미 전역 44개 지점에서
한인 커뮤니티 최대 은행으로 도약합니다.
고객 여러분과 더 큰 가능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로 은행의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BBCN

나라은행과 중앙은행의 새 이름

Member of **FDIC** **EQUAL HOUSING LENDER** BBCN is a SBA Preferred Lender.

"The Biggest Asian Food Channel in North America"

H MART

365
days
Open
08:00AM~09:30PM

Always 언제나 고객과 함께 **약속**
with you

항상 아이와 약속 하듯이, 오직 고객과의 약속만을 생각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H-MART 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10년 또 100년이 지나도 고객만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따뜻한 이웃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Federal Way

Tel. 253.528.0500
31217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Exit : 143 to West
S 320th St to North
H-MART Mall Pkwy



Lynnwood

Tel. 425.776.5845~7
3301 184th St. SW
Lynnwood, WA 98037

Exit : 181B to North
181 to South
Alderwood Mall Pkwy

